

# 한국 · 일본 · 미국의 국민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임 춘 회

## 차 례

- I. 서 론
- II. 교과서 발행 제도
- III. 음악과 교육과정
- IV. 음악 교과서 비교 분석 및 논의
- V. 결 론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간적 가능성을 균형있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개발하도록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안내하고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저마다 개성있는 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교과 중 음악교과는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하는 일을 그 목적으로 한다.<sup>1)</sup> 이러한 음악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현장에서 음악 활동을 기능하게 하는 조직된 내용, 즉 음악 교과서가 필요하다.

음악 교과서는 음악 교사의 지도에 우선하여 학습 내용이나 학습 체계를 규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음악 학습의 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음악 수업은

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2), p. 112.

창작 학습 이외에는 이미 악곡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연주하고 듣는 과정이므로 음악 교과서의 교재로 선택된 음악 작품은 우수해야 하면서 교과서 내에서의 배열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 교과서가 과연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교과서를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며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의 음악교육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육 개혁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1989년에 음악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배양함에 중점을 둔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였으며, 미국은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개정이나 특별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예술교육 강화를 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일본, 미국의 음악 교과서의 내용 선정 및 조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음악 교과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일본·미국의 교과서의 저작·발행 및 채택 방식은 각각 어떠한가?
- ② 위 나라들의 교육과정 결정 방식과 편제 및 시간 배당, 그리고 음악과 교육과정은 각각 어떠한가?
- ③ 위 나라들의 음악 교과서의 내용 선정 및 조직은 어떠한가?

##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음악 교과서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 :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민학교 3학년 국정 음악 교과서 (1993년 발행)와 교사용 지도서

일본 : 교육출판주식회사에서 발행한(1991년) 3학년 점인정 음악 교과서

미국 : Macmillan 출판사에서 발행한(1991년) Barbara Staton, Merrill Staton, Marilyn Copeland Davidson, Phyllis Kaplan의 공저 『Music and You』 3학년 Teacher's Edition

위의 세 교과서의 교과서 구성 형태와 각 영역별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각 나라마다 교과서 발행 제도가 다른데, 우리 나라는 국민학교의 경우 1종도서 제도를 취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점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유 발행 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했으나 특정 출판사의 출판물 하나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지적된 내용이 미국 음악 교과서의 공통된 경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따른다.

## II. 교과서 발행 제도

### 1. 교과서의 개념과 조건

적어도 오늘의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교과서는 교육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 물론 각급 학교마다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목의 운영에서 사용하는 오늘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교육이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의 상황에서 학습하기 위한 조직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 교과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2)</sup>

교과서는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균형있게 담고 있는 공식화된 교육-학습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활동의 활용도만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 일반적인 학습 자료와 구별된다.

2) 한국2종교과서협회, "2000년대 한국교과서의 미래상", 교과서 개선연구 세미나 보고서, (서울: 교학사, 1986), p. 7.

## 2. 교과서관과 교과서 발행 제도

### 가. 교과서관

교과서관(觀)이란 '교과서가 학교 학습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교과서를 가르친다'고 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을 법령으로 공포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개념, 원리, 기능을 의미하며, 교과서는 이들을 학습하기 위해 활용되는 교재를 말한다. 즉 교과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곽병선과 이해영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보는 견해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교과서관을 「단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단힌 교과서관」은 교과서를 누구나 옳은 것으로 믿어야 할 신념이나 가치관을 담은 성전(聖典)과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력 평가 기준의 출처가 되며, 학교 수업에서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교과서는 누구나 발행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열린 교과서관」은 교과서를 하나의 학습 자료로 보고 학습에 보탬이 되는 한 누구나 그것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내용은 반드시 오류가 없는 지식과 경험의 전형을 담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아마도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단힌 교과서관」이든 「열린 교과서관」이든 어느 극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육은 없을 것이나, 대체로 한 나라의 수준에서 볼 때, 교육 전반이 「단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 가운데 어느 성향에 가까운 것인지는 여러 가지 교육 현상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과서 발행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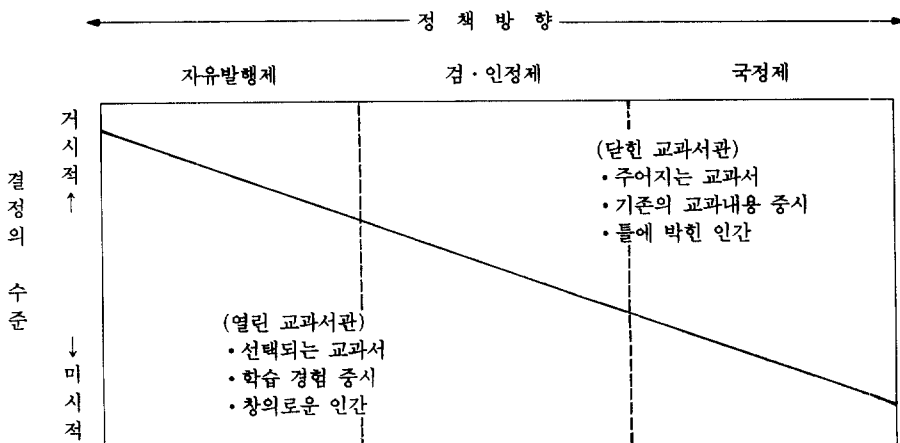
교과서 정책은 교과서의 조건에 부합하는 질 좋은 도서를 학교에 제공하여 교육의 성취를 높이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교과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교과서관과 밀려지는 인간됨과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통찰해야 하며, 또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대상과 그 결정을 내릴 주체의 수준에 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를 편찬 보급하는 과제에 있어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

들은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적 결정의 대상은 교과서의 질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방법 기술적 결정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거시적 결정은 교과서의 편찬 제도에 관한 것으로 교과서 발행 권한을 누가 갖게 하며, 그 공급, 선택, 비용 부담, 검정이나 검열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이냐에 관계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시적 결정은 교육과정 전문가·교육 공학 전문가·수업 이론 전문가·교과서 편집 전문가·교과 교육 전문가·발행인 등 주로 교과서 개발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행사해야 할 종류의 결정에 속한다고 보여지며, 거시적 결정은 정당·국회·사법부·교육 정책 담당 정부 부서 등 교육 정책 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고위 정책 결정 기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 볼 수 있다.

교과서 정책에 관한 한 미시적·거시적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과서관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즉 「닫힌 교과서관」을 기조로 하는 입장에서는 미시적 수준의 결정까지도 충분히 국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열린 교과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미시적 차원의 문제는 교과서 개발자들의 자율적·전문적 결정의 대상에 속한다. 교과서관과 교과서 결정 수준간의 이러한 가설적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 교과서 정책 결정 모형<sup>4)</sup>

위의 그림에서 보듯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과서를 편수·발행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또는 국가의 관여, 간섭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국정 제도, 검인정 제도, 자유 발행 제

3) 박병선·이혜영,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연구보고 RR 86-6, pp. 32-33.

4) 박병선·이혜영, 앞의 책, p. 35.

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 제도에서는 교과서를 만드는 계획부터 집필·발행·채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며,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 교과 또는 영역별로 한 종류만 발행된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좋든 싫든 그 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검인정 제도는 개인 또는 민간 단체가 교과서를 만들면 국가가 이의 사용 여부를 검사한 다음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며, 자유 발행 제도는 개인 또는 민간 단체가 임의대로 교과서를 만들어 발행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인정 제도와 자유 발행 제도에 있어서는 교과 또는 영역별로 발행되는 교과서의 종류 부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나라의 검인정 제도에 있어서는 그 부수를 8종으로 제한하고 있다.<sup>5)</sup>

### 3. 한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 가. 저작·발행

우리 나라에 있어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발행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국정, 검인정 제도라는 말 대신에 1종도서, 2종도서 제도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과거에 국가(교육부)가 직접 계획·집필·발행하던 제도를 국가가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계획, 집필하도록 하는 (연구 개발형) 제도로 바뀌었을 뿐,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한 종류의 교과서만이 발행·채택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국정 제도와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sup>6)</sup>

우리 나라에서 교과용 도서의 편찬 과정은 1종과 2종에 따라 다르다.

1종도서의 범위는 초등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용 도서와, 중·고등학교의 일부 보통 교과서가 주축이다. 1종도서 편찬 과정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에 따라 교육부 담당 연구관의 참여 하에 단위 교과서당 연구진이 구성되어 그 연구 결과를 내용 집필에 반영하는 선행 과정과, 실제 적용에 앞서 현장 검토를 이행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의 다단계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선(先)연구, 후(後)개발의 장점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으며, 이 때문에 1종도서를 ‘연구개발형’이라 부른다.

2종도서의 대상은 1종도서 및 인정도서 이외의 것을 말한다. 2종도서의 검정 합격 유효 기간은 최초 사용 학년도부터 5년간이며, 이의 편찬·발행은 교육부의 검정 실시 공고→검정 신

5) 이용숙 외 2명,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연구 보고 RR 94-1, p. 57.

6) 이명덕 외 7명, 「교과서 체계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연구보고 RR 85-30, p. 75.

청(저자)→집필→검정본 제출→심사(1차, 2차)→합격 결정→합격 공고→인쇄·발행→공급으로 이어지는 개발 과정을 거친다.<sup>7)</sup>

이 외에 1종이나 2종 또는 종래의 국·검정의 것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고 그 사용 사례가 특별한 인정도서는 선택 교과서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어느 종류이건 교과용 도서는 그 개발 과정이 교육부장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실제 학교 수업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 나. 채택

학교장은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있어서 1종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도서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밝혀 놓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은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도서의 교육부장관 승인에 관한 사항은 2종도서 검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과용 도서의 채택에 관한 한 모든 것은 교육부장관의 통제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 4. 일본의 교과서 발행 제도

#### 가. 저작·발행

일본의 교과서 정책은 '검정교과서'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 교육법 제21조는 '소학교에 있어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성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준용되고 있다.<sup>9)</sup>

고등학교의 실업 교과서 일부와 특수교육학교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일반 저자와 출판사에 의해 집필·편집되어 문부성의 검정을 거친 후 교과서로 발행하게 된다. 의무교육제학교(諸學校)(초·중학교)의 교과서 발행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신청에 의해 문부대신이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교과서만이 문부대신이 작성하는 교과서 목록에 등재되어 채택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교과서의 공공성, 권위성이 중시되어 교과서 출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하며, 일반 저자 및 출판사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의 초안은 엄격한 검정 심사를 받게 된다.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7)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27.

8) 광병선, 「교육과정」, 교육연구총서 7권, (서울: 배영사, 1983), pp. 276-278.

9) 이용숙 외 2명, 앞의 책, p. 51.

(7) 신청자가 검정을 신청하면

(1) 문부대신이 검정심의회에 자문한다.

(2) 검정심의회는 조사원에게 원고조사를 의뢰하며 아울러 현직 교사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검정심의회 조사분과회도 원고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3) 검정심의회는 조사원 및 교과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와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터하여 교과로서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이것을 문부대신에게 보고하고, 문부대신은 그것에 기초하여 검정을 행한다.<sup>10)</sup>

같은 검정교과서 제도라고 하지만, 일본의 검정교과서 제도는 검정 시기, 검정교과서의 채택 담당 부서, 교과별 검정교과서 수의 제한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우리 나라의 검정교과서 제도와 다르다.

#### 나. 채택·공급

교과서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는 소관 교육위원회에 속하며, 국립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채택한다. 의무교육 제학교(초·중학교)의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을 단위로 일정 지역별로 공동 채택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

### 5.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 가. 저작·발행

미국의 교과서 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모두 일반 저자와 출판사에 의해 저작·발행되고 있다. 교과서의 집필은 주정부나 행정당국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연구가 또는 실천가들로 조직된 편집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각 주의 교육권이 독립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주나 지방 학구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그것에 터해서 교과서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출판사에서는 각각의 주가 어떤 교과서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검토하여 판매에 유리한 교과서를 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교과서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의 동향은 끊임없

10) 박병선·이혜영, 앞의 책, p. 46.

이 교과서 출판사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교과서는 이들 몇 개 주의 요구와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1)</sup>

#### 나. 채택·공급

미국은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에 대한 통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종류는 전국적으로 수천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교과서의 채택 과정에 의해 그 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어떤 주는 주 수준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고, 어떤 주는 학구 수준에서 채택한다고 한다. 주에서 '채택'한다는 말은 각 학교나 학교구에 추천하는 '목록'에 올린다는 뜻이다. 학교나 학교구가 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면 주로부터 교과서 구입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구의 '채택'은 성격이 다른데, 학교구는 주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책 가운데에서 1종 혹은 2종을 골라 이를 관내의 모든 학교에 부과하는 수가 많다.<sup>12)</sup>

교과서 채택 방식은 주(州)가 제약하는 정도에 의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지방 학교구의 교육위원회가 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채택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주가 인가한 교과서 명부에서 지방 학교구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주의 기준에 따라서 지방 학교구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주에 따라서는 세 가지 방식 중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어떤 방식에 의하든 지방 학교구에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에도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보통 현직 교사와 교육 행정가, 교과 전문가, 지역 사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그 수는 5-15인 정도이다.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각 교과별로 교과서를 검토 심사하여 합격된 교과서의 명부를 작성 배포하면 그 명부 내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때 내용이 부실한 교과서는 명부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교과서 선정 제도는 검정 제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Ⅲ. 음악과 교육과정

#### 1. 교육과정의 의미와 존립 양식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법령으로 공포한 것을 의미한다.

11) 박병선·이혜영, 앞의 책, p. 50.

12) 이용숙 외 2명, 앞의 책, p. 256.

교육과정은 그 실체에 있어서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중앙집중체제, 분산체제, 혼합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집중체제란 교육과정 결정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분산체제란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지방정부와 지역 단위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교사에 위임되어 있는 체제를 말한다. 혼합체제란 위의 두 체제의 절충 형태로서 기본적인 교육 목표나 내용 선정의 지침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이나 자료 선정에 관한 권한은 지역 단위 교육청 또는 학교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상 교육과정의 세 가지 존립 양식은 어느 것이 보다 우월하거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중앙집중체제가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는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경직성을 유발하고 지나친 분산체제는 교육의 평등주의와 교육 혁신에 장애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교육과정 존립 양식의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지나친 극단을 피하여 결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각국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경향을 보면, 중앙집중형에 속하는 나라는 분산을 지향하고, 지방분산형에 속하는 나라는 중앙집중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지방 교육 행정 관서인 지방 교육청(Local Educational Authority, LEA)이 고등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등 고도로 분권화된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sup>13)</sup>, 1988년의 교육 개혁법에 의하여 의무교육 기간 동안 가르쳐야 할 교과목과 각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을 연령 수준별로 제시한 '국가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등 중앙집중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교육부가 초·중등 학교의 교과별, 학년별 주간 수업 시간 수와 학년별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각 학교는 그것에 따라 시간표를 작성하여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 등 중앙집중체제이었으나, 1983년의 두 법과 특히 1985년의 법에 의하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 공동체(시의회, 도의회, 지역의회 등)로 넘겨주는 등 지방분권화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sup>14)</sup>

## 2. 한국의 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 결정 방식

우리 나라의 교육법 제155조에 의하면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교육법 시행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sup>15)</sup> 따라서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 중앙집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교 교

13) 장기원, "영국의 교육개혁", 교육월보 1991년 11월호 통권 제119호, 교육부, pp. 76-79.

14) 이용숙 외 2명, 앞의 책, pp. 359-360.

15) 박병선, 앞의 책, p. 269.

육에서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확정 고시한 문서화된 계획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보아진다.

교육과정 결정의 제1단계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방향, 초·중·고등학교급별 교육 목표 및 편제, 교과별 목표 및 내용이다.

교육과정 결정의 제2단계는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편찬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교육부가 직접 발행하는 1종 도서와 교육부가 점정한 2종도서가 있다.

교육과정 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학교 교사가 수업 목표, 수업 모형, 교수-학습 활동, 교재 및 매체, 공간 활용, 시간 계획 등을 구체적 수업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세 단계 중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은 학교와 교사의 수준 밖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학교 교사 수준의 수업 계획은 교육과정의 실천과 관련하여 쉬임없이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과업이 된다.

#### 나. 국민학교의 편제와 시간 배당<sup>16)</sup>

##### 1) 편제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1)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로 편성한다. 다만, 1, 2학년의 통합 교과 활동은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편성한다.
- (2) 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로 편성한다.

#### 다.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 1) 제5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1987년 고시)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은 음악성 계발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이론적이거나 지적 중심의 개념적인 지도를 지양하고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통합적 학습 방법을 지향하여 교육과정의 영역을 표현과 감상으로 구분 제시하였고, 종전의 기본 개념 영역을 표현과 감상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16)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제 87-9호, 1987. 6. 30), 1988, pp. 50-51.

### 3. 일본의 교육과정

#### 가. 일본의 교육과정 결정 방식

일본은 국가 교육과정 제도를 따르고 있다. 문부성에서는 학교 교육법을 바탕으로 문부성의 법적 자문기관인 '교육과정 심의회'의 답신을 받아서, 유치원과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습지도 요령」을 결정하여 공시한다.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다음의 5단계를 따른다: 1) 문부대신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자문' 요청, 2) 교육과정 심의회(문부성 자문기관)의 답신(기본 가이드 라인 개발), 3) 「학습지도 요령」 개정(문부성의 교과 전문가와 협조자들이 교과별, 학년별 교육과정 작성), 4) 개정 「학습지도 요령」의 학교에서의 적용, 5) 다음 개정 준비를 위한 평가. 이 중에서 1)에서 3)까지의 단계가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 반 정도이다.<sup>17)</sup>

각 학교에서는 이 「학습지도 요령」을 토대로 하되, 지역과 학교의 실태,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학교가 나름대로 독특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 실제로는 의무교육(중학교까지) 단계의 거의 모든 공립학교는 유사한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본 학교들은 너무나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니며 대부분 학교별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각각의 구별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초·중학교에 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나. 편제 및 수업 시수

##### 1) 편제

소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는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공작, 가정, 체육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소학교 교육과정은 그 영역을 교과, 도덕, 특별 활동의 3개 영역으로 잡고 있으며, 도덕을 교과 영역과 구별하여 생활 및 교과 전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1989년에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1, 2학년의 저학년 과정에 '생활'과를 신설하여 '사회'와 '이과'를 통합한 점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17) 이용숙 외 2명, 앞의 책, p. 365.

18) 박병선 외 6명,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pp. 436-437.

## 2) 수업 시수

일본 소학교의 각 학년별 교과, 도덕, 특별 활동의 수업 시수는 <표 1>과 같다.

< 표 1 > 일본 소학교 연간 수업 시수

| 구 분 학 년                         |      | 제1학년              | 제2학년              | 제3학년              | 제4학년               | 제5학년               | 제6학년               |
|---------------------------------|------|-------------------|-------------------|-------------------|--------------------|--------------------|--------------------|
| 각<br>교<br>과<br>수<br>업<br>시<br>수 | 국 어  | 306(9)<br><36%>   | 315(9)<br><35%>   | 280(8)<br><29%>   | 280(8)<br><28%>    | 210(6)<br><21%>    | 210(6)<br><21%>    |
|                                 | 사 회  |                   |                   | 105(3)<br><11%>   | 105(3)<br><10%>    | 105(3)<br><10%>    | 105(3)<br><10%>    |
|                                 | 산 수  | 136(4)<br><16%>   | 175(5)<br><19%>   | 175(5)<br><18%>   | 175(5)<br><18%>    | 175(5)<br><18%>    | 175(5)<br><18%>    |
|                                 | 이 과  |                   |                   | 105(3)<br><11%>   | 105(3)<br><10%>    | 105(3)<br><10%>    | 105(3)<br><10%>    |
|                                 | 생 활  | 102(3)<br><12%>   | 105(3)<br><12%>   |                   |                    |                    |                    |
|                                 | 음 악  | 68(2)<br><8%>     | 70(2)<br><8%>     | 70(2)<br><7%>     | 70(2)<br><7%>      | 70(2)<br><7%>      | 70(2)<br><7%>      |
|                                 | 도화공작 | 68(2)<br><8%>     | 70(2)<br><8%>     | 70(2)<br><7%>     | 70(2)<br><7%>      | 70(2)<br><7%>      | 70(2)<br><7%>      |
|                                 | 가 정  |                   |                   |                   |                    | 70(2)<br><7%>      | 70(2)<br><7%>      |
|                                 | 체 육  | 102(3)<br><12%>   | 105(3)<br><12%>   | 105(3)<br><11%>   | 105(3)<br><10%>    | 105(3)<br><10%>    | 105(3)<br><10%>    |
| 도 덕                             |      | 34(1)<br><4%>     | 35(1)<br><3%>     | 35(1)<br><3%>     | 35(1)<br><3%>      | 35(1)<br><3%>      | 35(1)<br><3%>      |
| 특 별 활 동                         |      | 34(1)<br><4%>     | 35(1)<br><3%>     | 35(1)<br><3%>     | 70(2)<br><7%>      | 70(2)<br><7%>      | 70(2)<br><7%>      |
| 총 수업 시수                         |      | 850(25)<br><100%> | 910(26)<br><100%> | 980(28)<br><100%> | 1015(29)<br><100%> | 1015(29)<br><100%> | 1015(29)<br><100%> |

\* ① 한 단위 수업 시간은 45분이다.

② ( ) 안은 1학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기타 학년은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평균 시간 수이다.

③ < > 안은 시간 배당을 교과별 비율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임.

④ 도덕에 종교를 포함시키는 경우, 그 수업 시수도 도덕 수업 시수의 일부로서 포함됨.

## 다.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일본은 1989년(평성 원년) 3월에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는데, 일본 음악 교육과정 개정의 기

본 방향에 관하여 「소학교 지도서-음악편」(평성 원년, 문부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배양함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개선을 꾀한다. 이 때 소학교에서는 음악성의 기초를 육성함과 더불어 아동들이 음악 활동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9)</sup>

이와 같은 일본 음악과 교육과정의 방향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음악 학습에서 주체적인 학습태도를 기르고자 한다는 점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의 실제 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실태나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교급 전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 학년별로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학교와 중학교가 같은 체계로 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표현과 감상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표현 영역에서는 지도 내용과 학습 자료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고, 감상 영역에서도 지도 내용과 감상 자료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표현 영역의 지도를 굳이 가창, 기악, 창작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내용 체계를 간단히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 소학교 및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

#### ◦ 학교급 목표

#### ◦ 학년의 목표와 내용

|   |    |   |    |
|---|----|---|----|
| [ | 목표 | [ | 표현 |
| [ | 내용 | [ | 감상 |

## 3)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 가) 목표(3학년과 4학년)

(1) 음악의 미를 감지하여 음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기른다.

19) 성경희·권동원,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연구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연구보고 RR 92-11, pp. 54-59.

- (2) 선율의 청취와 표현에 중점을 두어 표현 및 감상의 능력을 기른다.
- (3) 음악 경험을 살려서 생활을 밝고 윤택하게 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 나) 내용(3학년)

##### A. 표현

- (1) 음악을 듣거나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범창과 범주를 듣고 연주하기
  - ② 다장조의 선율을 시창하거나 시주하도록 한다.
- (2) 악곡의 기분과 음악의 특징적 요소를 느끼고 분석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 ①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 ② 박의 흐름과 프레이즈를 느끼며 연주하거나 신체표현하기
  - ③ 음의 중복을 느끼면서 합창하거나 합주하기
- (3) 노래 방법과 악기의 연주 기법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 ① 발음 및 호흡 방법에 유의하여 두성 발성으로 노래하기
  - ② 전반악기 및 타악기를 연주하기
  - ③ 리코더에 친숙해져 간단한 선율을 연주하기
- (4) 음악을 만들어 표현하도록 한다.
  - ① 선율과 음의 구조를 분석하여 표현하기
  - ② 즉흥적인 음을 선택하여 표현하기
- (5) 다음과 같은 음표와 쉼표 및 기호를 이해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 ♫, ♪♩, 오선과 덧줄의 선 및 칸의 이름, ∨

- (6) 교재는 다음에 제시한 것을 사용한다.
  - ① 주가 되는 가창 교재는 공통 교재에 있는 3곡을 포함하여 제창, 운창 및 2부 합창으로 노래하는 악곡 등 연간 15곡 정도로 함.
  - ② 주가 되는 중주 및 합주 교재는 기습한 가창 교재를 포함하여, 주선율에 화음과 부차적인 선율을 합한 것과, 여기에 타악기의 리듬을 첨가한 것 등을 연간 3곡 정도로 함.
  - ③ 공통 교재
    - 「토끼」(일본 옛노래),
    - 「찾ыл 따는 노래」(문부성 창가)

「시냇가의 봄」(문부성 창가) 다카노 신시 작사,

오까노 조오 작곡

「후지산」(문부성 창가)

## B. 감상

(1) 음악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① 곡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며 듣기
- ② 음악의 특징과 요소에 유의하여 듣기
- ③ 주요 선율의 반복 및 변화에 유의하여 듣기. 또 이것들의 선율들이 이루는 부차적인 선율의 흐름을 느끼며 듣기
- ④ 악기의 음색과 특징에 유의하여 듣기. 또 음의 조화를 느끼며 듣기

(2) 교재는 다음에 제시한 것을 사용한다.

- ① 주요 감상 교재는 아래에 있는 공통 교재 3곡을 포함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곡을 연간 6곡 정도로 함.
  - (가) 서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악곡
  - (나) 독주와 관현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연주 형태에 의한 악곡
  - (다) 음악의 요소와 음색의 특징을 느끼기 쉽고, 음악의 넓이를 알 수 있는 악곡
- ② 공통 교재
 

가곡 「경기병 서곡」 주페 작곡

「폴로네즈」(관현악 조곡 제2번 나단조 중에서) 바하 작곡

「미뉴에트」사장조 베토벤 작곡

## 4. 미국의 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 결정 방식

미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결정은 크게 네 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과정 결정은 주(州)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연방정부의 교육성이라는 미국 내 최고의 교육 행정 기구가 있기는 하나, 교육의 실체에 관한 한 주정부의 교육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교육국이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1) 주(州)교육과정 개정 여부에 대한 결정, 2)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수요목(syllabus)이나 교과과정(Course of Study) 결정, 3) 각 교수요목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교사지도서 등 교육과정 자료들의 개발, 4) 각 학구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종류

의 실험적 교육과정 개정안들을 검토·승인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두 번째 수준은 지역 학교구 혹은 학구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교육과정 결정 수준으로, 미국에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학구의 교육청이 행사한다. 주교육국이나 교육위원회라는 상부기관은 학교보다는 지역 학구 교육청을 그 관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학구 수준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 결정 작업의 기본 성격은 주교육국의 교육과정안을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상세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수준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결정 수준인데, 단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영역은 학구 교육청에서 작성한 교육과정안을 좀 더 상세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교육국이나 학구 교육청에 의하여 필수 교과 영역 및 각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종류, 그리고 필수 영역에서의 전체 이수 단위수 등이 정해지면, 단위 학교는 필수 영역에서 제시된 교과목 중에서 구체적으로 개설할 교과목과 교과목 개설 시기 등을 결정하며 개설할 선택 과목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단위 학교는 상당한 수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수준은 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결정 수준으로,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교육과정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비록 교사가 어떤 새로운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혹은 필수 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설정되어 있는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핵심이나 교육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라는 학구 안에 있는 '에스칸디도'라는 국민학교 4학년의 경우, A반은 1년 동안 사회 시간에 미국의 초기 역사 및 캘리포니아주 역사와 지리를 배운 데 비하여, B반은 1년 동안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문을 쓰는 법을 배웠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과목에 무슨 내용을 채우느냐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적 결정 권한은 결국 교사의 손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sup>20)</sup>

## 나. 교육과정의 편제와 운영

### 1) 편제

미국의 국민학교는 교과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이나 명칭이 주마다 서로 다르다. 주정부는 자신들의 초·중등학교에서 채택할 교과목의 최소한의 종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구나 학교단위에서 구체화된다. 보통 주에서 국민학교의 교과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교과는 언어, 수학, 사회, 자연, 건강, 음악, 미술, 체육 등이다.

20) 라병선 외 6명, 앞의 책, pp. 28-33.

## 2) 시간 배당

워싱턴주에 있는 씨애틀 학교구의 경우(1990) 국민학교 교과 영역 및 시간 배당 비중은 <표 2>와 같다.

< 표 2 > 워싱턴주 씨애틀 학교구의 국민학교 교과 영역 및 시간 배당<sup>21)</sup>

| 구 분 \ 학 년 | 1           | 2 - 3       | 4 - 6       |
|-----------|-------------|-------------|-------------|
| 국 어       | 18% (4.5)   | 19% (4.8)   | 19% (5.2)   |
| 읽 기       | 19% (4.8)   | 15% (3.8)   | 13% (3.6)   |
| 수 학       | 14% (3.5)   | 15% (3.8)   | 16% (4.4)   |
| 사 회       | 8% (2.0)    | 10% (2.5)   | 12% (3.3)   |
| 과 학       | 8% (2.0)    | 10% (2.5)   | 10% (2.8)   |
| 건 강       | 4% (1.0)    | 4% (1.0)    | 3% (0.8)    |
| 음 악       | 7% (1.8)    | 6% (1.5)    | 5% (1.4)    |
| 미 술       | 7% (1.8)    | 6% (1.5)    | 6% (1.7)    |
| 체 육       | 7% (1.8)    | 7% (1.8)    | 8% (2.2)    |
| 휴 식       | 8% (2.0)    | 8% (2.0)    | 8% (2.2)    |
| 계         | 100% (25.0) | 100% (25.0) | 100% (27.5) |

\* ① WAC(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180-16-200에 의함.

② 워싱턴주의 경우 시간 배당은 교과별 비율(%)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간 수로 환산하여 ( )안에 표시하였음.

## 다. 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교과 교육과정 구성 방식의 공통점은 각 교과별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하나의 문서로서 한꺼번에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각 영역의 학교 단계간 연계, 즉 일관성이 증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과목에서(사회 제외) 3-4개의 학년군별로 묶어서 탐구가능 위주의 교육내용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sup>22)</sup>

21) 이용숙 외 2명, 앞의 책, p. 265.

22) 이용숙 외 2명, 위의 책, p. 279.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캘리포니아주는 예술교과를 통한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인간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989년 음악, 미술, 무용, 연극의 4개 부문이 하나의 공통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새로운 통합예술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sup>23)</sup>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의 노력은 결국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예술성, 그리고 미적 감수성이나 정서 등이 독립적으로 학습되고 발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과 속에서의 여러 영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서로 다른 예술 분야라도 예술교과일 경우에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학교 음악교육은 심미적 음악교육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음악미적 감수성을 폭넓게 발달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sup>24)</sup>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음악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발달시키기 위한 '미적 지각 영역', 음악성 및 다양한 음악적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창의적 표현 영역', 인간과 음악의 상호관계를 이해시키는 '음악 문화 유산 영역', 그리고 음악에 대한 판단력과 가치관을 발달시키기 위한 '미적 가치관 영역'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각 영역은 영역별 대목표 아래 소목표가 행동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 학습내용이 초급, 중급, 고급 3단계의 난이도 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초급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미적 지각 영역 - 지각/개념 발달

##### ◦ 목적(대목표)

1. 음악의 표현력에 대한 감수성 발달
2. 청각 능력 발달
3. 음악적 수용 능력과 분별력 발달
4. 음악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이해 발달

23) 성경희·권동원, 앞의 책, pp. 40-41.

24)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Visual and Performing Arts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Sacramento, Cal., 1989), pp. 74-79.

◦ 내용(행동 목표의 내용)

| 개념적 영역 |           | 발달 단계 1 (초급수준)                                               |
|--------|-----------|--------------------------------------------------------------|
| 소리     | 소리 형성     | ·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소리 만들어 보기                                 |
|        | 소리 변형     | · 소리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                                       |
| 음악적 경험 | 음 높이      | · 신체표현, 악기 연주, 노래하기 등을 통해 음높이를 나타내기                          |
|        | 리듬        | · 정확하게 리듬꼴을 모방하기                                             |
|        | 화음        | · 카논, 오스티나토와 함께 말 유형을 조합하기                                   |
|        | 형식        | · 같거나 다른 악구를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근육 운동 지각적으로(kinesthetically) 구분하기 |
|        | 음의 짜임새    | · 선택된 악곡의 예에서 음의 짜임새의 차이를 인식하기                               |
|        | 빠르기 및 셈여림 | · 신체표현, 악기 연주, 노래하기를 통하여 빠름, 느림, 큼, 작음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
| 기보기호   | 음색        | · 음색의 차이 인식하기                                                |
|        |           | · 단순한 가락의 가락·윤곽(melody contour)을 그리기 위하여 움직이기                |

나) 창의적 표현 영역 - 음악적 기능 발달

◦ 목적

1. 음악적 소리 표현의 질(expressive quality)에 대해 예민해지기
2. 음악적 수용 능력과 분별력 발달
3. 능력있고 지적인 연주가, 작곡가, 그리고 음악의 소비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기능 발달

◦ 내용

| 개념적 영역 |        | 발달 단계 1 (초급수준)                                                                                                                                                                                                           |
|--------|--------|--------------------------------------------------------------------------------------------------------------------------------------------------------------------------------------------------------------------------|
| 가      | 창      | · 보다 정확한 음높이와 리듬으로 가락을 부르기<br>· 노래 모임에 참여하기                                                                                                                                                                              |
| 기      | 악      | · 단순한 오스티나토와 부르동(bourbons, 오래 지속되는 낮은 음)을 melody bells, resonator bells, 글로첸시벨, 실로폰 등과 같은 가락악기(tonal instruments)로 연주하기<br>· 반주있는 노래에서 음악의 박으로 오토하프 연주하기<br>· 노래, 찬트, 혹은 녹음된 기악 작품을 반주할 때 단순한 타악기로 정확한 리듬과 적당한 셈여림을 연주하기 |
| 신      | 체      | · 신체동작으로 음악의 박을 표현하기<br>· 동작에서 가락의 리듬을 표현하기<br>· 신체표현을 통해 같거나 같지 않은 악구를 설명하기                                                                                                                                             |
| 독      | 보 및 기보 | · 정확하게 선 기보법(line notation)과 손 신호를 사용하기<br>· 소리를 위한 상징을 읽고 쓰기                                                                                                                                                            |
| 창      | 작      | · 목소리, 신체 혹은 악기를 사용하여 단순한 가락과 리듬을 즉흥연주하기<br>· 단순한 고유 가락꼴을 창작하기                                                                                                                                                           |
| 감      | 상      | · 다양한 음악적 특색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확인하기                                                                                                                                                                                            |

다) 음악 문화 유산 영역 - 역사·문화적 가치 이해

◦ 목적 : 여러 문화 유산의 부분인 음악의 양식, 특색, 연주 매체, 그리고 목적들의 자각과 이해를 발달시키기

◦ 내용

| 개념적 영역     | 발달 단계 1 (초급수준)                                                |
|------------|---------------------------------------------------------------|
| 개인적인 유산    | · 각자의 종족음악을 연주하거나, 다른 종족음악의 연주를 듣고 또 참여하기                     |
| 문화적/음악적 공헌 | · 많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
| 사회적/역사적 영향 | · 자장가, 행진곡, 애도가 등 음악의 다양한 목적을 토의하기<br>· 다양한 목적으로 고안된 음악을 경험하기 |

라) 미적 가치관 영역

◦ 목적 : 미적 가치의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의 소리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

◦ 내용

| 개념적 영역     | 발달 단계 1 (초급수준)                   |
|------------|----------------------------------|
| 문화적 배경     | ·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유래된 세계 음악을 인식하기     |
| 판 단        | · 녹음된 음악을 기꺼이 듣고 연주회장 가기         |
| 기 능        | · 다른 경우를 위한 음악의 다른 양식의 고유성을 인식하기 |
| 음악적 구조와 요소 | · 음악의 요소를 구별하기                   |

## IV. 교과서 비교 분석 및 논의

### 1. 음악 교과서의 구성

#### 가. 음악 교과서의 전체 구성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음악 경험 즉, 음악의 표현 및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수업 현장에서의 음악적 경험은 주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악곡들이 음악 교과서에서 배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음악교육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나라의 음악 교과서의 전체 구성은 <표 3>에서 보듯 '일반 편성'과 '특수 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t; 표 3 &gt; 음악 교과서의 전체 구성

| 구분<br>나라 | 일 반 편 성      |       |                     | 특 수 편 성                                                                                  |
|----------|--------------|-------|---------------------|------------------------------------------------------------------------------------------|
| 한 국      | 교재곡<br>(제재곡) |       |                     | · 애국가<br>· 즐거운 노래와 합주(가창, 기악)                                                            |
| 일 본      | 3 학기         | 14 주제 | 교재곡<br>(주제재곡, 부제재곡) | · 즐거운 리코더(기악:중주, 독주)<br>· 즐거운 합주(기악)<br>· 소리 놀이(창작)<br>· 전교 합창(가창)<br>· 총정리(리코더, 오선, 음표) |
| 미 국      | 8 단원         | 64 과  | 교재곡                 | · 모음곡(감상)<br>· 음악극(가창)<br>· Songbook(가창)<br>· 용어 풀이, 찾아보기                                |

음악 교과서의 일반 편성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교재곡을 단순 나열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과 미국의 음악 교과서는 교재곡을 조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음악 교과서는 전체가 3학기로 되어 있으며, 매 학기는 4-5개의 주제로, 각 주제는 1-2개의 주제재곡과 1-2개의 부제재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교과서 전체를 8개의 단원으로, 각 단원은 6-10개의 과(課)로, 각 과(課)는 1-3개의 교재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 교과서의 특수 편성을 영역별로 보면 한국은 가창과 기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일본은 가창, 기악, 창작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미국은 가창과 감상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세 나라 음악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교 합창' 부분이 있는데 전교생이 같은 곡을 학년 차에 따라 달리 편곡하여 함께 연주함으로써 화합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기회를 마련한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미국의 음악 교과서는 노래에 연극적인 요소를 미한 음악극과 '동물의 사육제' 전곡 감상의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음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마지막 부분의 몇 면을 보면, 미국 음악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에 산재해 있던 음악 용어를 정리하여 놓은 '용어 풀이' 난(欄)과 악곡들을 주제별로 또는 알파벳 순서로 분류해 놓은 '찾아보기' 난(欄)이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표 4>에서 보듯 수록된 내용의 방대함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일본의 음악 교과서는 '총정리'라고 하여 3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코더의 운지와 오선·음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연주 사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과서 마지막 부분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표 4 >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의 양 및 쪽수

| 구 분<br>나 라 | 가 창 곡 | 기 악 곡 | 감 상 곡 | 쪽 수 |
|------------|-------|-------|-------|-----|
| 한 국        | 33    | 3     | 7     | 64  |
| 일 본        | 26    | 10    | 6     | 56  |
| 미 국        | 132   |       | 43    | 278 |

한국은 교과서 첫머리에 ‘애국가’를 수록하여, 음악 교과를 통해 학생에게 국가(國家) 의식을 심어 주고자 하였는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과서 끝에 전교 합창의 2곡 중 한 곡을 일본 국가(國歌)로 선정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국가(國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교과서 8 단원 중 첫 단원의 제목을 ‘모두를 위한 미국 음악’이라 하여 10개의 과(課)의 악곡을 모두 미국 음악으로 편성하였다. 즉 세 나라 모두 음악교과를 통하여 학생이 애국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음악 교과서의 제재 구성 방법

음악교육은 예술적 경험과 수용을 교육 내용과 방법의 기본 수단으로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음악적 경험인 음악의 표현과 수용을 통하여 음악교육은 비로소 실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창 및 기악을 통한 연주 활동, 창작 활동 및 감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악적 경험이라 함은 음악의 형식과 내용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며, 음악교육의 주된 교재는 악곡이다.

음악교육을 위해 선택된 교재를 일반적으로 제재(題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재는 음악 학습의 단위가 된다. 제재는 학습 지도의 목표와 내용을 조직하는 단위로서, 그 제재에 내재하는 교재성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학습 지도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재 구성 방법이다.

<표 5>를 보면 우리 나라의 음악 교과서는 악곡 그 자체가 제재명이 되는 악곡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1제재 1교재의 형태로서 각각의 악곡은 독립된 학습 단위가 된다<sup>25)</sup>. 악곡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은 주어진 악곡을 익숙하게 노래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도록 하며, 감상을 통해 친숙하게 하는 등 교재 악곡을 정복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하게 되므로 연주회 등의 발표에 알맞은 반면에, 각각의 제재간에 유기적인 관련성 및 계통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한 제재곡 배열식이 되어, 내용 구성의 산만함과 가창 위주의 음악 수업을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26)</sup>

25) 심대용, “한국과 일본 국민학교의 음악 교과서 내용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30.

&lt; 표 5 &gt; 한국 음악 교과서의 제재 구성(32쪽-39쪽의 예)

| 제 재     | 교재곡     | 학 습 내 용                                                     |
|---------|---------|-------------------------------------------------------------|
| 소풍      | 소풍      | 박자를 치며 부르기<br>※가락 듣고 가리기<br>※가락짓기                           |
| 가을      | 가을      | 가락의 느낌을 느끼며 부르기<br>'소풍' 노래와 다른 점 이야기하기<br>※발성 자세            |
| 미뉴에트    | 미뉴에트    | 양식, 음색(감상곡)<br>되풀이되는 가락 듣기                                  |
| 리듬악기 노래 | 리듬악기 노래 | 리듬악기의 음색과 어울림<br>※리듬 듣고 적기<br>※리듬 만들기<br>※리듬악기의 바른 주법 이야기하기 |

&lt; 표 6 &gt; 미국 음악 교과서의 제재 구성(8 단원 중 6 단원의 예)

| 6 단원 : 다른 민족은 다른 음악을 만든다. |                                                                |                                                     |
|---------------------------|----------------------------------------------------------------|-----------------------------------------------------|
| 주 제                       | 교재곡 및 국적                                                       | 학 습 내 용                                             |
| 1. 미국 흑인의 음악              | · 복음(미국 흑인영가)<br>· 춤(미국)<br>· O 주위를 돌아라(미국)                    | (감상곡) f, p<br>미국 흑인의 리듬<br>전통 놀이요                   |
| 2. 음악과 미술에서의 쉼여림          | · 거리의 노래(헝가리)                                                  | (그림) 쉼여림<br>(감상곡) 쉼여림<br>ff, pp의 설명<br>(시) 눈 내리는 모습 |
| 3. 배운 음높이와 새로운 음높이        | · 천사들과 속삭이기(미국 흑인영가)<br>· Tongue-Twister Canon<br>(미국 전통 돌림노래) | b, a, g음의 유형 찾기<br>테스칸트                             |
| 4. 아는 음높이                 | · 용의 노래(중국 전통민요)                                               | 중국 새해 의식 설명<br>악기-낮은(높은) 솔 연주                       |
| 5. 음색                     | · 좋았던 시절에(미국 민요)<br>· 영국 지방의 춤(영국)<br>· 산의 봄(미국 발라드)           | ~, 반주악기 듣기<br>(감상곡) 하프의 음색<br>가사 내용에 맞는 쉼여림         |
| 6. 박자 찾기                  | · 영국 지방의 춤(영국)                                                 | 강박과 약박 치기, 박자,<br>춤추기, 박자 미로(迷路)                    |
| 복습 및 확인                   | · 배운 곡 복습<br>· 개념 확인(문제 3-4개)                                  |                                                     |

이에 비해 <표 6>에서 보듯 미국의 경우는 주제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1 제재 다교재의 형태이며, 주제는 지도할 내용, 즉 음악 요소와 원리, 개념이다. 주제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은 음악적 요소의 구조체인 교재 악곡을 수단으로 하여 그것을 노래 부르고 연주하며 감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음악의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원리, 개념 등을 이해하게 하고 기능을 향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을 이용한 자기 음악의 산출을 쉽게 한다.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는 주제를 하나의 과(課)로 하고, 6-10개의 과(課)를 한 단원으로 하여 전체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단원에 쓰이는 교재곡들을 다른 나라(또는 가을, 휴일, 계절, 미국, 현악기 등)의 음악만으로 한정하여 선정함으로써 음악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 7>을 보면 일본의 교과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는 몇 개의 교재곡을 하나로 모아 주제를 정한 주제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교과서의 주제가 음악의 개념이나 구성 요소인 데 비해 일본 교과서의 주제는 가르치는 내용을 가리키거나 일련의 학습 내용을 하나로 묶는 제목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같은 주제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이라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의 교과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일본 음악 교과서의 제재 구성(3학기 중 2학기의 일부분)

| 주 제     | 교 재 곡                                        | 학 습 내 용                                                  |
|---------|----------------------------------------------|----------------------------------------------------------|
| 일본의 가락  | · 토끼(주제재곡)<br>· 저녁놀이 희미해짐(부제재곡)              | #의 뜻, 일본 고요(古謡)<br>(기악곡)-와라베우타(童歌)                       |
| 박자에 맞추어 | · 바람(주제재곡)<br><br>· 미뉴에트(주제재곡)<br>· 행복(부제재곡) | 점음표<br>※리코더 연습 ④<br>(감상곡)-양식, 음색, 점음표<br>점음표             |
| 악기로 즐겁게 | · 축제(주제재곡)<br><br>· 미키마우스 마을(주제재곡)           | (가창+기악)<br>※만든 리듬을 곡에 사용<br>※리코더 연습 ⑤<br>(기악곡)-만든 팡파레 연주 |

그리고 일본 교과서가 주제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악곡의 표현 및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제의 성격과 제재의 음악적 단위가 음악 개념 보다 오히려 각 영역의 음악 경험, 즉 음악의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 자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lt; 표 8 &gt; 음악 교과서 지문의 예

| 나 라 | 제 재 곡 의 지 문                                                                                                                       |
|-----|-----------------------------------------------------------------------------------------------------------------------------------|
| 한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악 합주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li> <li>· 가사의 뜻을 살려 노래 부른다.</li> </ul>                               |
| 일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을 타고 말이 확실하게 들리도록 노래합시다.</li> <li>· 부드러운 소리로 아름다운 울림을 만듭시다.</li> </ul>                 |
| 미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부를 때 가락의 모양을 따라 가거라. 음표는 점점 높아지다가 끝에 갑자기 낮아진다.</li> <li>· 이 노래에서 운음표를 찾아라.</li> </ul> |

악곡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으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일본 음악 교과서의 주제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도 어느 정도 계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구성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2. 음악 교과서의 영역별 지도 내용

### 가. 가창

가창 활동은 학생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음악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구현하고, 악곡의 체험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며, 가창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학교 음악 학습의 가장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가창 학습이 다른 영역과 다른 점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사용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자주적·창조적·개성적인 학습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 가창 교재의 형태

가창 교재의 형태는 <표 9>와 같이 크게 단성 구조, 다성 구조, 화성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단성 구조의 가창 교재는 각각 76%, 90%로 압도적인 데 비해 일본은 42%에 지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인다.

악곡이 순수한 단선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데, 그 울림의 연속이 화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성 구조(돌림노래, 테스칸트)의 가창 교재와 화성 구조(부분 2부합창, 2부합창)의 가창 교재 등 화음감을 느낄 수 있는 악곡의 형태는 한국이 24%, 미국이 10%, 일본이 58%로,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이나 미국의 학생들보다 화음을 통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훨씬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9 > 가창 교재의 형태 비교

| 형태<br>나라 | 단성 구조     |         | 다성 구조   |        | 화성 구조    |        | 계          |
|----------|-----------|---------|---------|--------|----------|--------|------------|
|          | 제창곡       | 메기고 받기  | 돌림노래    | 데스칸트   | 부분2부     | 2부     |            |
| 한 국      | 25 (76%)  |         | 4 (12%) |        | 4 (12%)  |        | 33 (100%)  |
| 일 본      | 10 (38%)  | 1 (4%)  | 2 (8%)  |        | 11 (42%) | 2 (8%) | 26 (100%)  |
| 미 국      | 108 (82%) | 11 (8%) | 11 (8%) | 2 (2%) |          |        | 132 (100%) |

돌림노래의 비율은 한국이 12%, 일본과 미국은 8%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들의 화성적 감각은 선율을 통한 친밀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돌림노래의 학습 과정을 통한 음악미의 체득은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데스칸트는 주선율과 동시에 소리나는 주선율보다 높은 두 번째 선율을 말하는데,<sup>27)</sup> 미국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데스칸트는 한 마디에 한 음을 노래하도록 하는 곡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쉽게 노래 부르는 가운데 다성 구조와 화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표 10 > 부분 2부합창곡의 합창 부분

| 나라  | 마디수 | 2       | 3      | 4       | 7-9     | 16     | 계         |
|-----|-----|---------|--------|---------|---------|--------|-----------|
| 한 국 |     | 1 (25%) |        | 2 (50%) | 1 (25%) |        | 4 (100%)  |
| 일 본 |     | 2 (18%) | 1 (9%) | 2 (18%) | 5 (46%) | 1 (9%) | 11 (100%) |

<표 10>은 부분 2부합창곡에서 합창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부분 2부합창곡의 합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2-4마디 정도인 악곡은 한국이 3곡(75%), 일본이 5곡(45%)이고, 7-16마디 정도인 악곡은 한국이 1곡(25%), 일본이 6곡(55%)이다. 따라서 일본의 음악 교과서가 한국에 비해 부분 2부합창곡의 수도 많고, 한 악곡당 합창하는 마디의 수도 많아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어려운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에 있어서 합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7-16마디 정도인 악곡은, 1마디(또는 2마디, 4마디)의 가락적 리듬(melodic shape)을 반복하기(3곡), 돌림노래식으로 따라가며 부르기(2곡), 그리고 1마디 안에 한 음 부르기(1곡) 등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화음감을 체득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Barbara Staton 외 3명, 『Music and You, 3학년 Teacher's Ed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1), p. 272.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1, 2학년 시기부터 화음을 감지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 때에는 화음보다 리듬이나 가락에 주목하기 때문에, 화음에 대한 감지와 이해는 3, 4학년을 거치는 동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5, 6학년에 와서야 화음 감지력과 그 이해에 현저한 향상을 보인다.<sup>28)</sup> 그렇다면 3, 4학년 학생들에게는 화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쉽고 다양한 형태의 교재곡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 교과서의 '합창 부분'의 형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독창 대 제창, 또는 제창 대 제창으로 불러질 수 있는 '메기고 받기(Call and Response)' 형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창 행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준다는 점과 하나와 여럿의 음색의 차이를 인식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 메기고 받기 형태의 가창 교재가 있고 우리 나라의 음악 교과서에는 1곡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가창 교재의 국적

< 표 11 > 가창 교재의 국적 비교

| 구분<br>나라 | 자기 나라 악곡    |             | 외 국 곡       |           |           |           |            | 계             |
|----------|-------------|-------------|-------------|-----------|-----------|-----------|------------|---------------|
|          | 현대곡         | 전통음악        | 유럽          | 남북미       | 아프리카      | 아시아       | 국적 모름      |               |
| 한 국      | 21<br>(64%) | 2<br>(6%)   | 1<br>(3%)   |           |           |           | 9<br>(27%) | 33<br>(100%)  |
| 일 본      | 11<br>(42%) | 2<br>(8%)   | 6<br>(23%)  | 2<br>(8%) |           |           | 5<br>(19%) | 26<br>(100%)  |
| 미 국      | 33<br>(25%) | 59<br>(45%) | 20<br>(15%) | 8<br>(6%) | 4<br>(3%) | 8<br>(6%) |            | 132<br>(100%) |

가창 교재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자기 나라 악곡이 70%이고 외국곡이 30%로서 자기 나라 악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기 나라 악곡과 외국곡의 비율이 똑같이 50%로서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외국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일본 교과서에 있어서 외국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1947년판 「학습지도 요령」에 있는 '유럽 음악의 음조'를 음악교육의 기초로 해서 가르친다.'라는 커리큘럼 구성의 원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음악교육계에 뿌리깊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28)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p. 171.

29) 심대용, 앞의 책, pp. 51-52.

한편 현대곡과 전통음악 교재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64%/6%, 일본이 42%/8%, 미국이 25%/45%로,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과서에서 현대곡을 중시하는 데 비해 미국의 음악 교과서는 전통음악에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사정을 고려한 편집이라고도 생각되며, American 음악(30%), African American 음악(11%), 하와이 음악(2%), American Indian 음악(2%) 등이 전통음악에 포함된다.

전통음악은 한 민족의 문화 유산의 하나이다. 독일의 현대 작곡가 칼·오르프(Carl Orff, 1895-1982)는 '어린이는 그 민족의 근원적·원시적·생명적인 힘을 소박한 자세로서 간직하고 있다.'<sup>30)</sup>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로 하여금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가운데 음악적인 능력과 더불어 그 악곡에 스며 있는 민족의 얼을 마음껏 호흡하고 자기 자신의 민족혼도 형성하도록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을 최대한으로 학교 교육에 도입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과 유럽 음악이 그 구성 요소가 대부분 이질적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통음악의 교재화와 함께 전통음악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곡의 나라별 분포 상황을 보면 일본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유럽 지역의 음악을 가창 교재로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남북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음악 등 세계의 음악을 다룬 점과 16곡 정도(12%)를 그 나라 언어로 표기한 것 등은 학생으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영국 곡 1곡 외에는 국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학습할 때에 나라와 음악과의 관계를 학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악곡의 국적은 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 3) 가창 교재의 조성

가창 교재의 조성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가창 교재의 조성 비교

| 조성<br>나라 | 장 조      |          |        |        |          |          |        |        | 단 조    |        |        |        | 조<br>바꿈 | 조<br>없음 | 전통<br>음악풍 | 계            |
|----------|----------|----------|--------|--------|----------|----------|--------|--------|--------|--------|--------|--------|---------|---------|-----------|--------------|
|          | C        | D        | E♭     | E      | F        | G        | A      | B♭     | d      | e      | g      | a      |         |         |           |              |
| 한 국      | 17<br>52 |          | 2<br>6 |        | 6<br>18  | 2<br>6   |        |        | 1<br>3 | 1<br>3 |        |        |         |         | 4<br>12   | 33곡<br>100%  |
| 일 본      | 7<br>27  | 1<br>4   | 1<br>4 |        | 9<br>35  | 3<br>11  |        |        | 1<br>4 | 1<br>4 | 1<br>4 |        |         |         | 2<br>7    | 26곡<br>100%  |
| 미 국      | 33<br>25 | 13<br>10 | 3<br>2 | 3<br>2 | 31<br>23 | 30<br>23 | 1<br>1 | 3<br>2 | 6<br>5 | 4<br>3 | 1<br>1 | 1<br>1 | 2<br>1  | 1<br>1  |           | 132곡<br>100% |

30)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창지사, 1986), p. 83.

장조곡의 비율은 한국 82%, 일본 81%, 미국 88%로 단조곡에 비해 크게 편중되어 있는 점과, 장조 중에서도 C, F, G장조의 악곡이 한국 76%, 일본 73%, 미국 71%로 장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나라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C, F, G장조 악곡의 양이 비슷한 정도로 수록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은 C장조의 악곡이 많고 일본은 F장조의 악곡이 많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가창 교재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조의 곡에 있어서는 세 나라가 각각 한국이 d, e단조의 2개 조, 일본이 d, e, g단조의 3개 조, 그리고 미국이 d, e, g, a단조의 4개 조를 사용하여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음악풍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그 비중이 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통음악을 교재화함으로써 우리의 음악만이 갖는 고유성을 체득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장·단조를 포함하여 가창 교재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개, 일본은 9개, 미국은 14개로서, 한국 가창 교재의 구성이 미국에 비해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곡의 음계(scale)와 음정(interval)에 관련되는 정서적 상태<sup>31)</sup>가 있다고 본다면, 음악 교과서에 다양한 음계의 악곡을 수록하여 경험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계이름으로 부르기

〈표 13〉은 계이름 지도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 표 13 > 계이름 지도 방법

| 나라 \ 방법 | 음계 계단             | 오 선        | 손 오선(Hand Staff)                                  | 표기 유형        |
|---------|-------------------|------------|---------------------------------------------------|--------------|
| 한 국     | C장조               | C장조        |                                                   | 도레미          |
| 일 본     |                   | C장조        |                                                   | 도레미          |
| 미 국     | C장조<br>F장조<br>G장조 | C장조<br>G장조 | F장조<br>E장조<br><br>도가 칸(줄)에 있으면<br>미, 솔도 칸(줄)에 있다. | 도레미<br>1 2 3 |

세 나라 모두 계명창법(또는 도레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계이름에 대한 학습 지도 과정을 보면 일본은 오선만 사용하는 데 비해, 한국은 음계 계단과 오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3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앞의 책, p. 51.

음계 계단과 오선, 손 오선(Hand Staff)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음악 교과서는 도, 미, 솔의 관계를 줄과 줄의 관계, 또는 칸과 칸의 관계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독보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이름과 함께 숫자로 음높이를 알도록 지도하고 있다.

< 표 14 > 계이름으로 부르는 악곡의 구성과 악보의 유형

| 구분<br>나라 | 악곡의 구성                                              | 악곡의 수    | 악보의 유형                                                                             |
|----------|-----------------------------------------------------|----------|------------------------------------------------------------------------------------|
| 한 국      | C장조 4                                               | 4 (12%)  |  |
| 일 본      | C장조 1                                               | 1 ( 4%)  |                                                                                    |
| 미 국      | C장조 6<br>D장조 4<br>F장조 7<br>G장조 8<br>E♭장조 1<br>E장조 1 | 27 (20%) |  |

<표 14>로 보아, 악곡을 계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세 나라 모두 이동도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듣고 부르기로 학습한 C장조의 가창 교재를 계이름 악보에 의하여 보고 부르게 함으로써 음정감을 싹트게 함은 물론 독보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독보의 교량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음악 교과서는 C, D, F, G장조를 중심으로 E♭, E장조의 오선 악보 앞에 do, 또는 악곡의 빈도수가 높은 계이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보다 높은 단계의 독보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이름 보고 부르기의 다른 방법으로 숫자 악보와 문자 악보가 있는데, 숫자 악보의 경우 정도가 높은 악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문자 악보(예: Tonic Sol·Fa법)의 경우 'd, r, m, f, s, l, t, d'' 등의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익혀야 한다는 점이 있어, 우리 나라의 음악 학습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편 계이름을 표기하는 정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음악 교과서에는 가창 교재 한 곡 전체에 계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반복되는 부분이나 같은 음이 연속되는 경우에 계이름 표기를 생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독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독보력 신장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lt; 표 15 &gt; 가창 교재의 박자 비교

| 나라 \ 구분 | 2박자계        |            |           | 3박자         | 4박자         | 변박자       | 계             |
|---------|-------------|------------|-----------|-------------|-------------|-----------|---------------|
|         | 2/4         | 6/8        | 2/2       | 3/4         | 4/4         |           |               |
| 한 국     | 16<br>(49%) | 5<br>(15%) |           | 4<br>(12%)  | 8<br>(24%)  |           | 33<br>(100%)  |
| 일 본     | 7<br>(27%)  |            |           | 6<br>(23%)  | 13<br>(50%) |           | 26<br>(100%)  |
| 미 국     | 38<br>(29%) | 13<br>(9%) | 4<br>(3%) | 17<br>(13%) | 59<br>(45%) | 1<br>(1%) | 132<br>(100%) |

### 5) 가창 교재의 박자

한국은 2/4박자의 악곡이 전체 가창 교재의 49%를 차지하는 데 비해,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4/4박자가 각각 50%, 45%를 차지하고 있다.

박자의 형태를 보면 한국은 4가지 형태를 사용하고, 일본은 3가지 형태를 사용하는 데 비해, 미국은 6가지 형태를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박자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6/8박자의 경우 한국은 15%, 미국은 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해당 악곡이 한 곡도 없다.

박자 표기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2/4, 4/4, 6/8 등 분수로 표기하는 데 비해 미국은  $\frac{2}{P}$ ,  $\frac{4}{P}$ ,  $\frac{2}{P}$  형태로 표기하여 한 박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분명히 한 점이 눈에 띄며, 특히 6/8박자의 경우 복잡한 6박이 아닌 2박으로 표기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더 수월하게 음악에 접근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참고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는 2/4박자의 악곡 '기차'는 '큰 기차, 작은 기차'로, 3/4박자의 악곡 '내 모자'는 '큰 모자, 작은 모자, 작은 모자'로 표시하여 박자를 박의 덩어리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 음악의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문자 기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기악

#### 1) 교실에서 연주되는 악기

학교 수업의 현장에서 실제 연주되는 악기는 <표 16>과 같다.

교실에서 학습 중 사용되는 악기의 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13가지로 5가지인 미국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교실악기(classroom instrument)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악기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과서는 우드블럭, 방울, 카우벨 등 교과서에 나오는 리듬악기의 종류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며, 나무통, 찻잔, 고무밴드, 빈 깡통, 양동이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창조의 기쁨과 함께 악기의 원리 및 음색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 표 16 > 교실에서 연주되는 악기

| 악기<br>나라 | 가 락 악 기 |      |        |      |       |       | 화성악기 |      | 리듬악기 |     |     |       |       |     |    |      |    |     | 계  |
|----------|---------|------|--------|------|-------|-------|------|------|------|-----|-----|-------|-------|-----|----|------|----|-----|----|
|          | 리코더     | 첼금 * | 멜로디언 * | 목금 * | 오르간 * | 키보드 * | 피아노  | 오토하프 | 큰북   | 작은북 | 탬버린 | 트라이앵글 | 캐스터네츠 | 심벌즈 | 장구 | 우드블럭 | 방울 | 카우벨 |    |
| 한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일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미 국      | ○       | ○    |        |      |       | ○     |      | ○    |      |     | ○   |       |       |     |    |      |    |     | 5  |

\* ① ‘\* 표’ 악기는 화성악기이나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주로 단선율을 연주하므로 가락악기로 분류하였음.

② 세 나라의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연주하는 리코더의 종류는 소프라노이다.

미국의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 없는 오토하프라는 화성악기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한 주법으로 화음감을 체득할 수 있는 악기이며 리코더나 첼금에 비해 노래의 반주를 할 수 있어 음악의 생활화에 기여하는 악기라고 볼 수 있다. 오토하프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제재곡에 ‘chord’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교과서가 바로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 교실에서 연주하는 악기가 모두 서양악기인 데 비해, 한국 음악 교과서에는 장구라는 전통 리듬악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진다.

## 2) 기악 교재의 형태

가창 교재를 악기로 연주하는 정도는 한국이 39%, 일본이 35%, 미국이 14%로, 미국 음악 교과서에 있어서 기악 교재화된 가창 교재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많지 않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가창+가락악기〉 형태의 악곡이 많은 반면 한국은 〈가창+가락악기+리듬악기〉 형태, 즉 가창과 함께 기악 합주를 하는 악곡이 많은데, 이러한 형태는 학생들의 연주 기능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lt; 표 17 &gt; 기악 교재의 형태

| 형태<br>나라 | 기악 교재화 된 곡  |             |                      | 가창<br>곡수 | 순수 기악곡 |    |          | 기악<br>곡수 | 계  |
|----------|-------------|-------------|----------------------|----------|--------|----|----------|----------|----|
|          | 가창+<br>리듬악기 | 가창+<br>가락악기 | 가창+<br>리듬악기+<br>가락악기 |          | 독주     | 중주 | 기악<br>합주 |          |    |
| 한 국      | 3 (9%)      | 3 (9%)      | 7(21%)               | 33       |        | 2  | 1        | 3        | 16 |
| 일 본      |             | 8 (31%)     | 1 (4%)               | 26       | 2      | 3  | 5        | 10       | 19 |
| 미 국      | 1 (1%)      | 17 (13%)    |                      | 132      |        |    |          |          | 18 |

순수 기악곡의 형태는 일본이 10곡, 한국이 3곡, 그리고 미국은 한 곡도 없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이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기악 교육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순수 기악곡이 없는 것은 악곡의 연주 기능보다 음악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의 교과서에는 중주와 기악 합주곡이 실려 있으나 독주곡이 없으므로 연주악기의 특성을 살린 독주곡을 한 두곡 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가창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교재의 형태는 음악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위해 음악 행위를 종합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창 교재를 가락악기로 연주하도록 할 때는 사용되는 악기의 주법을 생각하여 주법을 학습한 범위 안에서 연주하도록 악곡을 신중히 선정하거나, 하나의 가창곡 중에서도 연주 가능한 부분만을 택하여 연주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3) 학습 활동할 때의 가락 및 화성악기 활용도

학습 활동을 할 때 가락 및 화성악기를 활용하는 영역을 보면, 한국이 가창, 기악의 2개 영역, 일본이 가창, 기악, 창작의 3개 영역, 미국이 가창, 창작, 감상의 3개 영역으로, 한국 음악 교과서의 경우 가락 및 화성악기가 보다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 음악 교과서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락 및 화성악기로는 리코더, 멜로디언, 오르간 등으로 그 비중이 비슷하게 높고, 일본은 다른 가락악기에 비해 리코더의 활용 빈도가 월등히 높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비해 가락악기의 학습 활용도가 낮으며, 주로 활용되는 악기도 리코더가 아닌 첼금이다.

리코더, 멜로디언, 오르간, 첼금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는 첼금인데, 그것은 특별한 주법이 필요 없으며 눈으로 보고 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판

하나하나 떼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은 필요한 음만 따로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의 부담을 덜어 준다.

< 표 18 > 학습 활동할 때의 가락 및 화성악기 활용도

| 구 분<br>나 라      악 기 |         | 가창<br>영역 | 기악<br>영역 | 창작<br>영역 | 감상<br>영역 | 활용정도<br>(회) | 계   |
|---------------------|---------|----------|----------|----------|----------|-------------|-----|
| 한국                  | 총악곡(회)수 | 33곡      | 3곡       | 12회      | 7곡       | ※           | 55  |
|                     | 리코더     | 5        | 3        |          |          | 8           | 33  |
|                     | 첼금      | 3        | 1        |          |          | 4           |     |
|                     | 멜로디언    | 7        | 2        |          |          | 9           |     |
|                     | 목금      | 1        | 1        |          |          | 2           |     |
|                     | 오르간     | 8        | 1        |          |          | 9           |     |
| 피아노                 |         | 1        |          |          | 1        |             |     |
| 일본                  | 총악곡(회)수 | 26곡      | 10곡      | 9회       | 6곡       | ※           | 51  |
|                     | 리코더     | 8        | 10       | 3        |          | 21          | 35  |
|                     | 첼금      | 2        | 1        |          |          | 3           |     |
|                     | 멜로디언    | 2        | 5        | 1        |          | 8           |     |
|                     | 목금      |          | 3        |          |          | 3           |     |
| 미국                  | 총악곡(회)수 | 132곡     |          | 11회      | 43곡      | ※           | 186 |
|                     | 리코더     | 3        |          | 1        |          | 4           | 25  |
|                     | 첼금      | 11       |          | 3        | 1        | 15          |     |
|                     | 오토하프    | 5        |          |          |          | 5           |     |
|                     | 키보드     | 1        |          |          |          | 1           |     |

멜로디언은 입으로 불어서 소리나는 악기로서 같은 음이 연속될 때 손은 그대로 둔 채 텅잉(tonguing, 음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혀의 움직임)으로만 연주하는 악기인 데 비해, 오르간은 발로 페달을 누르고 음을 하나 하나 손으로 눌러 주어야 하는 악기이다. 즉 멜로디언과 오르간은 그 주법에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이 연주하기에 어려워하는 점이 있으므로, 보다 연주하기 쉬운 가락악기의 활용을 생각해 봄직하다. 특히 오르간의 경우 교실에 1대 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오르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다른 악기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코더는 텅잉하는 방법이 멜로디언과 비슷하지만, 멜로디언이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음을 누를 수 있는 악기인 데 비해 리코더는 손에 들고 운지해야 하는 악기이므로, 리코더가 멜로디언보다 한 단계 높은 연주 수준을 요구하는 악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교과서에서 리코더보다 첼금을 학습에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 4) 가락악기로 연주하는 음의 수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의 음악 교과서에서 활용되는 가락악기인 리코더와 미국의 경우 리코더보다 빈번히 활용되는 첼금을 택하여 그 연주곡에서 사용되는 음의 수를 알아보았다.

&lt; 표 19 &gt; 가락악기로 연주하는 음의 수

| 구 분<br>음의 수 | 한 국                       |   | 일 본                    |   | 미 국     |   |               |   |
|-------------|---------------------------|---|------------------------|---|---------|---|---------------|---|
|             | 리코더                       |   | 리코더                    |   | 리코더     |   | 첼금            |   |
| 1 개         |                           |   |                        |   |         |   | g             | 1 |
| 2 개         |                           |   | g, c'                  | 2 |         |   | g, a          | 1 |
|             |                           |   | a, c'                  | 1 |         |   | e, g          | 1 |
|             |                           |   | c', d'                 | 1 |         |   | c, f          | 1 |
| 3 개         | g, b, c'                  | 2 | g, a, b                | 2 | g, a, b | 3 | g, a, b       | 5 |
|             |                           |   | a, b, c'               | 1 |         |   |               |   |
|             |                           |   | f, g, a                | 1 |         |   |               |   |
| 4 개         | b, c', d', e'             | 1 | g, a, b, c'            | 5 |         |   | g, a, b, d'   | 1 |
|             |                           |   | e, g, a, b             | 1 |         |   | f, g, a, b, a | 1 |
|             |                           |   | g, a, c', d'           | 1 |         |   |               |   |
| 5 개         | g, a, b, c', d'           | 1 | g, a, b, c', d'        | 5 |         |   |               |   |
|             | g, b, c', d', e'          | 1 | e, g, a, b, c'         | 1 |         |   |               |   |
|             |                           |   | e, f, g, c', d'        | 1 |         |   |               |   |
| 6 개         |                           |   | f, a, b, c', d, b', d' | 2 |         |   |               |   |
|             |                           |   | e, g, a, b, c', d'     | 1 |         |   |               |   |
| 7 개         | e, g, a, b, c', d', e'    | 1 | e, f, g, a, b, c', d'  | 1 |         |   |               |   |
|             | c, d, e, g, a, c', d'     | 1 |                        |   |         |   |               |   |
| 8 개         | e, f, g, a, b, c', d', e' | 2 |                        |   |         |   |               |   |
| 계           | 9                         |   | 26                     |   | 3       |   | 11            |   |

\*가창곡과 기악곡에서 리코더 2중주가 들어 있는 곡이 한국 1곡, 일본 8곡이므로 악곡의 수가 추가됨.

5개 이상의 음을 사용한 연주곡의 비율은 한국이 67%(6/9), 일본이 42%(11/26), 미국이 0%로, 한국 음악 교과서에서 리코더를 활용하는 연주곡이 학생들로 하여금 높은 연주 수준을 요구하며, 일본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리코더와 첼금을 사용하는 연주곡 14곡이 모두 4개음 이하를 사용하여, 연주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e'음이 등장하는 곡은 모두 5곡으로 전체 리코더 연주곡의 56%나 되는데, 리코더의 'e'음은 서밍(thumbing, 엄지 손가락으로 뒷구멍을 여는 방법)을 하고 세계 붙어야 하는 등 새로운 연주법을 요구하는 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시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연주곡에 'd b'음이 나오자 그 음 옆에 오선과 운지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4학년에 이르러서 'e'음을 연주하도록 지도 단계가 제시되어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 5) 악기의 주법 지도

〈표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 나라 음악 교과서에서 주법을 지도하고 있는 악기는 한국이 리코더와 멜로디언이고 일본은 리코더이며 미국은 리코더와 오토하프이다. 악기 지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의 고정도법을 사용하고 미국은 'C, D, E, F, G, A b, A, B, C'의 음명법을 사용하는 등 독보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20 > 악기의 주법 지도 단계

| 나라  | 지도악기         | 지 도 단 계                                                                                                                                                                                                                                           |
|-----|--------------|---------------------------------------------------------------------------------------------------------------------------------------------------------------------------------------------------------------------------------------------------|
| 한 국 | 리코더<br>(2회)  | ① c,d,e,f,g,a,b,c':오선과 운지표<br>악보(g,b,c'-제재곡과 함께 연주하기 위한 것),<br>② 2중주의 악보(g,a,b,c',d')<br>d'의 오선과 운지표                                                                                                                                              |
|     | 멜로디언<br>(2회) | ① c,d,e,f,g,a,b,c':오선과 건반<br>그림-오른손 손가락 번호가 써 있음.<br>악보-손가락 번호 제시(c,d,e,f,g-나비야, 8마디)<br>② 연주 사진(들고 연주하기, 책상에 놓고 연주하기)<br>설명-팅잉<br>악보-'투투' 표기(c,d,e,f,g의 단순한 가락, 4마디)                                                                             |
| 일 본 | 리코더<br>(6회)  | 1-6단계까지 공통인 것-오선, 운지표, 연주 사진<br>① b:쥬는 법과 자세, 손가락 막는 법, 텅잉(토토토토-스), 악보(b)<br>a:숨의 사용법, 악보(a), (a,b)<br>② g:악보(g,a), (g,a,b)<br>③ c':악보(g,a,b,c')<br>④ d':악보(a,b,c',d')<br>※d b'의 오선에서의 위치와 운지표<br>⑤ f:악보(f,g,a)-독일식과 바로크식 둘 다 지도<br>⑥ e:악보(e,g,a) |
| 미 국 | 리코더<br>(2회)  | ① 사진-연주 자세, 운지 사진,<br>설명-잡기(왼손, 오른손), 구멍에 닿는 손가락 부분, 운지표(g,a,b)<br>② g,a,b:오선에서의 위치, 운지표, 운지 사진, 악보(g,a,b),<br>사진-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                                                                                                           |
|     | 오토하프<br>(1회) | ① 연주 사진<br>설명-악기 이름, 악기의 기능(코드 연주), 연주방법(오른손, 왼손)<br>연습곡-코드 연습 교재곡(F), (F, C7)                                                                                                                                                                    |

세 나라의 음악 교과서 모두 리코더의 주법을 수록하고 있는데 연주 수준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음악 교과서는 두 번의 지도 단계에 걸쳐서 'c,d,e,f,g,a,b,c',d'의 9개 음을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한 운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뿐, 호흡, 텅잉, 자세 등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여섯 단계에 걸쳐 'b,a,g,c',d',f,e'의 7개음과 임시표가 나왔던 'd b'음을 지도하는데, 첫 단계에서 'b음'을 연습할 때 리코더 쥐는 법과 자세, 손가락 막는 법, 텅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차차 다른 음을 연주하도록 하는 등 한국에 비해 학생들이 리코더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리코더 주법 지도는 2회에 걸쳐 'g,a,b'의 3개음을 지도하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리코더族 악기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악기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의 관계 또한 이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리코더 외에 한국에서는 멜로디언을 지도하고 미국에서는 오토하프를 지도하고 있다. 한국 음악 교과서의 멜로디언 주법 지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텅잉을 지도하지 않고 '나비야'를 연주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텅잉에 대한 설명과 '투투'의 표기가 된 단순한 악곡이 제시되어 있어 지도 단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텅잉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데, 그 이전에 멜로디언 연주곡이 4곡이나 수록되어 있어, 주법 지도 단계뿐만 아니라 멜로디언을 연주하는 악곡의 배열 또한 고려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단계를 재편성하여 연주 사진, 텅잉 설명, 오선과 건반, 손가락 번호 그림, '투투'와 손가락 번호가 쓰여 있는 4마디의 단순한 악보 등이 첫 번째 단계에 제시되어야 옳다고 볼 수 있으며, 연습곡과 함께 모든 멜로디언 연주곡에도 손가락 번호가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미국 교과서의 오토하프 주법을 살펴보면, 연주 사진, 악기의 기능 및 연주 방법 설명, 간단한 연습곡 등이 제시되어 있어, 1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연주하는 악기 중 리듬악기의 주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저학년에서 이미 연주를 해 왔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학년에 장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사진으로만 연주 자세가 나와 있을 뿐이어서 악기에 대한 소개와 주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 다. 창작

### 1) 창작 학습을 위한 내용

한국, 일본, 미국 음악 교과서의 창작 학습 내용은 <표 21>과 같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창작 학습에 사용할 도구를 제시하였는데, 일본은 목소리, 리코더,

멜로디언, 악기 등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목소리, 리코더, 철금, 리듬악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락악기의 경우 사용하는 음의 높이나 창작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g,a,b음>, <빠꾸기 소리>, 또는 <팡파레> 등을, 미국의 경우에는 <g,a,b음>, <산 오르내리기>, <유령같은>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악기나 사용할 음의 높이 등 창작 꺼리의 명확한 제시와 창작 목표의 구체적인 제시는 학생들이 창작 학습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표 21 > 창작 학습을 위한 내용

| 나 라        |      | 창 작 학 습 내 용                                                                                                                                                                                                                                                                                                          |
|------------|------|----------------------------------------------------------------------------------------------------------------------------------------------------------------------------------------------------------------------------------------------------------------------------------------------------------------------|
| 한국<br>(12) | 리듬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에 맞는 가사 찾기(2/4)</li> <li>· 리듬 듣고 가리기(4/4 1마디)</li> <li>· 주어진 리듬을 이어서 리듬 만들기(4/4 2-4마디)</li> <li>· 가사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2/4 2마디)</li> <li>· 말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li> <li>· 듣고 이어 리듬 적기(2/4, 4/4 2마디)</li> <li>· 리듬 듣고 적기(4/4 2마디)</li> <li>· 리듬 만들어 적기(2/4, 3/4, 4/4 2마디)</li> </ul> |
|            | 가락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 듣고 가리기(2/4 2마디)</li> <li>· 주어진 가락에 이어서 가락 만들기(4/4 2마디)</li> <li>· 말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짧은 말)</li> <li>· 말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문장)</li> </ul>                                                                                                                                          |
| 일본<br>(9)  | 리듬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물체를 쳐서 축제 분위기를 내는 리듬을 만들어 노래 전후에 넣기</li> <li>· 리듬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li> </ul>                                                                                                                                                                                              |
|            | 가락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혼자서&gt;인 곳에 리코더로 g,a,b음을 사용한 가락 넣기</li> <li>· &lt;빠꾸기&gt;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리코더로 불기</li> <li>· 리코더, 멜로디언으로 &lt;팡파레&gt; 만들어 곡 전에 연주하기</li> <li>· 마술사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가락 만들기(4/4 4마디)</li> </ul>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밤의 숲 속의 모습&gt;을 이야기하고 악기와 목소리로 표현하기</li> <li>· 꿈에게 들릴 소리를 상상하여 악기와 목소리로 표현하기</li> <li>·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반주하기</li> </ul>                                                                                                                                                   |
| 미국<br>(11) | 리듬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소리로 길고 짧은 소리 내기</li> <li>· 그림을 보고 생각한 빠르기를 리듬악기로 연주하기</li> </ul>                                                                                                                                                                                                           |
|            | 가락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소리로 높고 낮은 소리 내기</li> <li>· 철금으로 c,d,e,g,a음을 이용하여 산을 오르내리는 듯한 소리를 연주하기</li> <li>· 철금으로 b,a,g음을 이용하여 잔주곡 만들기(2/4 2마디)</li> <li>· 리코더(철금)로 b,a,g음을 이용한 유형을 만들어 가사 사이에 연주하기</li> </ul>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로 소리를 만들어 시 낭송할 때 반주하기</li> <li>· 목소리를 변화시켜 신비스럽게 낱말을 발음하기</li> <li>· 유령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기</li> <li>· 시 낭송할 때 운율적 낱말의 덩어리마다 다른 악기를 연주하기</li> <li>· 동물을 선택하여 시 쓰고 악기 소리를 더하기</li> </ul>                                                                                          |

이에 비해 한국 음악 교과서는 듣고 가리기에서 시작하여 쉬운 리듬이나 가락을 만들고 점차 긴 형태를 창작하도록 하는 등 나뉘대로 지도 단계를 밟고 있으나, 방법면에 있어서 리듬짓기의 경우 리듬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박자에 맞는 리듬을 짓도록 하였으며, 가락짓기의 경우도 가락악기의 종류 및 사용음에 대한 언급없이 박자에 맞는 가락을 짓도록 하여 창작 목표가 막연해짐으로써 창작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없는 창작 학습은 지양되어야 하며, 동식물의 움직임이나 울음소리 등을 흉내내기 또는 구체적인 사용음을 제시하기 등,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내용과 방법의 제시를 통하여 창작의 즐거움과 함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음표와 쉼표 및 기호에 대한 학습 내용

< 표 22 > 음표와 쉼표 및 기호에 대한 학습 내용

| 나라     |     | 한 국                   | 일 본                                                                                                                                  | 미 국                                                                                                                                                                                           |
|--------|-----|-----------------------|--------------------------------------------------------------------------------------------------------------------------------------|-----------------------------------------------------------------------------------------------------------------------------------------------------------------------------------------------|
| 횟수     |     | 1                     | 6                                                                                                                                    | 12                                                                                                                                                                                            |
| 지도내용   |     | 음표와 쉼표, 슬표            | · $\text{♪} = \text{♪} + \text{♪}$<br>· $\text{♩} = \text{♪} + \text{♪}$<br>· $\text{♩} = \text{♪} + \text{♪}$<br>· $\text{♩}$ 한숨 돌림 | · $\text{♪} \rightarrow 1\text{박}$<br>· $\text{♪} \rightarrow 2\text{박}$<br>· $\text{♩} \rightarrow 3\text{박}$<br>· $\text{♩} \rightarrow 4\text{박}$<br>· $\text{■} \rightarrow 4\text{박 쉬기}$ |
| 기<br>호 | 박 자 | 악보적기<br>2/4, 3/4, 4/4 |                                                                                                                                      | · 2박자 $\text{2/}$ , $\text{2/}$<br>· 3박자 기호 $\text{3/}$                                                                                                                                       |
|        | 오 선 | 악보적기 $\text{♩}$       | · $\text{♩}$ , 오선과 덧줄 및 칸의 이름                                                                                                        |                                                                                                                                                                                               |
|        | 빠르기 | (조금 빠르게)              | ( $\text{♪} = 96$ )                                                                                                                  | · $\text{♩}$<br>· ritard                                                                                                                                                                      |
|        | 셈여림 | (f, mf, mp)           |                                                                                                                                      | · f, p<br>· ff, pp                                                                                                                                                                            |
|        | 임시표 | (#)                   | · #                                                                                                                                  | · #<br>· b                                                                                                                                                                                    |

\* ( ) 안은 학습 내용의 제시없이 사용되는 것임

음표와 쉼표 및 기호에 대한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음악 교과서는 단순히 악보적기 학습으로 1회 제시되어 있으며, 빠르기나 쉼여림, #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보에 표기되어 단계적인 학습 안내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교과서는 6회에 걸쳐 학습 내용이 제시되면서 교재곡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구성되었다. 미국의 교과서는 교재곡과 관련 지어 지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나, 12회에 걸쳐 지도하며, 온음표와 온쉼표, 박자 및 박자 기호의 의미, 빠르기, 쉼여림, 그리고 임시표(b) 등에 관한 내용이 더 다루어져 있다.

빠르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경우 빠르기에 대한 설명없이 악보의 첫머리에 ♩ = 96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곡을 표현하는 가운데 연주곡마다 빠르기가 다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감상곡의 빠르기의 변화, 자장가의 빠르기, 동물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빠르기 등을 통해 빠르기의 개념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 표 23 > 음표에 관한 지문의 예(일본과 미국)

| 나 라 | ♩에 관한 지문                                                                                                                                                                  |
|-----|---------------------------------------------------------------------------------------------------------------------------------------------------------------------------|
| 일 본 | · ♩ = ♩ + ♩                                                                                                                                                               |
| 미 국 | · 노래를 부르며 ♩를 연주하시오.<br>박의 첫머리에서 연주를 시작하여 둘째 박과 셋째 박까지 소리나도록 하시오.<br>♩는 이 노래( 3/4 )에서 3박 동안 소리 납니다. 머리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시다.<br><br>3/4    ♩          ♩          ♩          ♩ |

음표에 관한 지문의 예를 보면, 일본의 교과서는 단순히 덧셈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 지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심미적으로 체득하기에는 교사의 또다른 지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교과서는 일일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 수업을 하는 교사의 수고를 덜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감상

음악은 음을 소재로 하는 예술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질서있게 전개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청각을 통해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며, 듣는다는 일은 음악을 형성하고 또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음악적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활동에는 가창·기악·창작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주와 창작

등 표현하는 세계는 전문가라도 한계를 면하기 힘든 데 비해 감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예술적인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 성장을 할 수 있다<sup>32)</sup>는 점에서 감상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1) 감상곡의 지문

감상곡의 지문을 분석하여 알아본 악곡 감상의 관점은 <표 24>와 같다.

세 나라의 음악 감상 관점은, 한국이 음색, 리듬, 형식, 양식의 4가지, 일본이 음색, 형식, 양식의 3가지, 그리고 미국이 셈여림, 음색, 빠르기, 리듬, 음높이, 형식, 양식의 7가지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 음악 교과서의 감상 관점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나라 모두 감상 관점 중의 하나로 음색을 들고 있는데, 한국이 71%, 일본이 100%, 미국이 61% 등으로 그 비중 또한 가장 높다.

감상곡의 지문에서 나타난 악곡 감상 관점의 양을 보면, 한국이 감상곡 7곡에 15개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감상곡 6곡에 10개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감상곡 31곡에 38개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감상곡 한 곡당 학생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평균 한국이 2.1개, 일본이 1.7개, 미국이 1.2개로,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감상 활동을 할 때 많은 주의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감상곡의 대표적인 구성 원리만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어 감상의 관점이 분명하며,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없이 즐거움을 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 표 24 > 감상곡의 지문 분석

| 요소<br>나라     | 셈여림         | 음색           | 빠르기         | 리듬          | 음높이        | 음의<br>짜임새 | 형식          | 양식          | 계<br>(개) |
|--------------|-------------|--------------|-------------|-------------|------------|-----------|-------------|-------------|----------|
| 한 국<br>(7곡)  |             | 5곡<br>(71%)  |             | 2곡<br>(29%) |            |           | 4곡<br>(57%) | 4곡<br>(57%) | 15       |
| 일 본<br>(6곡)  |             | 6곡<br>(100%) |             |             |            |           | 1곡<br>(17%) | 3곡<br>(50%) | 10       |
| 미 국<br>(31곡) | 3곡<br>(10%) | 19곡<br>(61%) | 4곡<br>(13%) | 2곡<br>(6%)  | 1곡<br>(3%) |           | 7곡<br>(23%) | 2곡<br>(6%)  | 38       |

\* 미국의 경우 감상곡이 모두 43곡이지만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14곡 중에서 2곡을 제외한 12곡의 지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31곡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32) 정세문, 앞의 책, pp. 297-298.

감상곡의 지문에 나타나 있는 악기의 음색에 대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성악곡은 세 나라 모두 1곡씩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악곡이다. 우선 독주악기의 음색을 학습하기 위한 감상곡을 보면, 일본은 관악기, 현악기 중심의 편성으로 되어 있고, 미국은 주로 현악기 중심의 편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음색을 고루 감상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 학생으로 하여금 음색에 대한 학습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음악 교과서에 있어서 현악기는 '민속 현악기', '활로 켜는 오케스트라 현악기', '다른 나라의 현악기'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3 단원, 5 단원, 8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현악기의 음색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편중된 편성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4학년 음악 교과서 「Music and You」<sup>33)</sup>에 나타난 감상 악기가 바순, 오보에, 색스폰, 클라리넷, 플루트, 피콜로 등 목관악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년마다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감상 악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편중된 편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표 25 > 감상곡에서 연주되는 악기의 음색

| 구분<br>나라 | 기 악                      |                                                                                             |         |                                                       | 성악     | 계  |
|----------|--------------------------|---------------------------------------------------------------------------------------------|---------|-------------------------------------------------------|--------|----|
|          | 독 주                      |                                                                                             |         | 합 주                                                   |        |    |
|          | 관악기                      | 현악기                                                                                         | 타악기     |                                                       |        |    |
| 한 국      | 플루트<br>1                 | 바이올린<br>1                                                                                   | 장구<br>1 | 농악기(뿃과리,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br>사물(뿃과리, 징, 장구, 북)<br>2 | ○<br>1 | 6  |
| 일 본      | 리코더,<br>플루트,<br>트럼펫<br>3 | 바이올린,<br>피아노<br>2                                                                           |         | 관현악기<br>1                                             | ○<br>1 | 7  |
| 미 국      | 프렌치혼<br>1                | 바이올린, 비올라,<br>첼로, 스트링베이스,<br>기타, 밴조, 하프,<br>애플래치안 덜씨머,<br>발랄라이카, 첼, 코라,<br>하프시코드, 피아노<br>13 |         | 활로 켜는<br>오케스트라 현악기<br>(바이올린, 비올라,<br>첼로, 스트링베이스)<br>1 | ○<br>1 | 16 |

\* ① 합주 형태로 연주되는 감상곡인 경우 합주악기 전체를 하나의 음색으로 봄.

② 음색을 학습하는 악기의 수가 한 감상곡에 두 가지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 악기의 음색을 학습하기 위해 여러 악곡을 감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악곡의 수를 나타낸 <표 24>의 음색 난(欄)의 수와 <표 25>의 계의 수와는 차이가 난다.

33) Barbara Staton 외 4명, 「music and You」 4학년 교과서,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1).

합주 형태의 감상곡을 보면, 한국이 2곡, 일본과 미국이 각각 1곡이 수록되어 있다. 합주곡을 들을 때에는 한 악기의 음색을 구별하기 쉽지 않으나,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울려 또다른 음색을 만들어 내므로, 합주로 된 악곡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 음악 교과서의 합주 감상곡은 팽과리,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 등으로 연주되는 전통음악(농악, 사물놀이)으로 구성되어, 학생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자기 나라의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감상곡이 모두 서양악기로 연주되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상곡 지문에 '관현악'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서양 음악인 '군대 행진곡'과 '시계포'를 통해 관현악의 음색을 감상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미국 음악 교과서의 경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스트링베이스의 음색을 학습한 후, 그 악기들의 합주를 감상하도록 하여 음색 학습의 효과를 크게 한 것은 고려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lt; 표 26 &gt;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형

단위:곡(%)

| 나라 \ 내용 | 감상+사진<br>+설명+연주 | 감상+사진<br>+설명 | 감상<br>+사진 | 감상<br>+그림 | 감상      | 계         |
|---------|-----------------|--------------|-----------|-----------|---------|-----------|
| 한 국     |                 |              | 3 (50%)   | 3 (50%)   |         | 6 (100%)  |
| 일 본     | 1 (17%)         |              | 4 (66%)   |           | 1 (17%) | 6 (100%)  |
| 미 국     |                 | 12 (80%)     | 2 (13%)   |           | 1 (7%)  | 15 (100%) |

\* ① 합주 형태로 연주되는 감상곡인 경우 합주악기 전체를 하나의 음색으로 봄.

② 한국 음악 교과서에는 지문없이 악기의 사진이 제시된 경우가 있음.

악기의 음색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상 외에 다른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6>을 보면 악기의 음색을 학습하는 데에는 감상 외에도 설명, 삽화, 연주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삽화의 종류는 '사진, 그림, 도해, 만화'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은 실제의 모양을 사진기로 찍은 것, 그림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간에 손으로 그린 회화적인 것, 도해는 실험 장치·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설계도와 같은 것, 그리고 만화는 손으로 그린 그림 중에서 익살스럽고 과장된 약화로 주로 대화체의 짧은 글과 같이 제시된 것을 말한다.<sup>34)</sup>

한국의 경우 대부분 사진과 그림으로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비해, 일본은 주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진은 글이나 다른 어떤 시각 매체보다도 사실적인 정보의 전달에 뛰어난 기능을 가지므로, 그림보다는 사진을 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4) 박시현, "한·일 국민학교 자연과 교과서 삽화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41.

2) 지문 외에 감상곡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

악곡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지문 외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표 27>과 같다.

< 표 27 > 지문 외에 감상곡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

단위:곡(%)

| 구분<br>나라    | 작곡가       |           | 악곡의 내용    |           | 악곡의 구조    |           |           | 기타        | 계  |
|-------------|-----------|-----------|-----------|-----------|-----------|-----------|-----------|-----------|----|
|             | 사진        | 설명        | 사진        | 그림        | 오선        | 리듬        | 도해        |           |    |
| 한국<br>(7곡)  | 3<br>(43) |           |           | 2<br>(29) | 5<br>(71) | 3<br>(43) | 1<br>(14) | 2<br>(29) | 16 |
| 일본<br>(6곡)  | 3<br>(50) | 3<br>(50) |           | 3<br>(50) | 4<br>(67) |           |           |           | 13 |
| 미국<br>(31곡) | 1<br>(3)  | 1<br>(3)  | 5<br>(16) | 5<br>(16) | 4<br>(13) |           | 2<br>(6)  | 3<br>(10) | 19 |

작곡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3명에 대한 사진만 실고, 미국은 1명에 대해서만 사진과 설명을 제시하는 데 비해, 일본은 3명에 대해서 사진과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 작곡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곡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해, 미국은 사진과 그림을 함께 실고 있어, 감상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곡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는 오선악보, 리듬악보, 도해를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감상 활동을 할 때 오선악보를 보면서 감상하도록 한다는 점과, 오선악보가 모두 다장조나 라단조로 이조(移調)되어 있어 학생들이 보기 쉽도록 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일본은 오선악보 밑에 원곡(原曲)의 조를 제시하여 감상곡의 실음(實音)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제시된 4곡의 오선악보 중 3곡은 가창 교재곡이며 감상 활동 이전에 학습한 것이다. 따라서 감상곡을 위해 제시되었다기 보다는, 가창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감상 활동을 통해 비교한다는 것에 가까우므로 감상곡을 위한 오선악보의 활용면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음악 교과서에서는 리듬을 제시한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농악', '풍년가', '군대 행진곡' 등 장단이나 리듬이 중요시되는 악곡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서 악곡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도해는 오선 악보의 음계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아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감상 지도(鑑賞地圖, Listening Map)'를 사용하여 감상 학습을 돕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요 가락을 '꽃', '새집', '벌집', '양어 연못(Fish Pond)', '버드나무' 등으로 시각화하여 곡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독보의 어려움없이 그림을 따라가며 감상하는 가운데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그림과 악기의 음색 및 표현 방법과의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3) 감상하기 전과 후의 학습 관계

악곡을 감상하기 전과 후의 학습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감상 학습의 형태가 얼마나 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자 함이다.

< 표 28 > 감상하기 전과 후의 학습 관계-한국(총 7곡)

| 감상 전의 학습    | 감 상 곡     | 감상 후의 학습 |
|-------------|-----------|----------|
|             | 1. 위모데스크  |          |
| 전래동요(새야 새야) | 2. 농악     |          |
|             | 3. 사물놀이   |          |
|             | 4. 군대 행진곡 |          |
|             | 5. 미뉴에트   |          |
| 전래동요(가을밤)   | 6. 풍년가    |          |
| 독립노래(시계)    | 7. 시계포    |          |

<표 28>을 보면 한국의 음악 교과서는 농악, 풍년가 등 전통음악을 감상하기 전에 같은 전통음악인 전래동요를 불러봄으로써 양식에 대한 음악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 점과, 묘사음악인 '시계포'를 감상하는데 '시계'를 불러봄으로써 감상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 점이 잘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감상 후 연계된 학습이 없으며, 나머지 4곡은 감상 학습과 감상 학습 전후의 활동이 아무런 연계가 없어 감상 행위 자체만이 목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29 > 감상하기 전과 후의 학습 관계-일본(총 6곡)

| 주 제       | 감상 전의 학습             | 감 상 곡          | 감상 후의 학습  |
|-----------|----------------------|----------------|-----------|
| 리코더와 친밀하게 | 리코더의 주법              | 1. 리코더 연주곡     |           |
| 즐거운 노래소리  | 독일 민요                | 2. 세계의 어린이들 노래 | 독일 민요     |
| 박자에 맞추어   | 점음표곡                 | 3. 미뉴에트-점음표곡   | 점음표곡      |
| 가락의 느낌    | 라단조곡                 | 4. 폴로네즈-바장조곡   | 사단조곡      |
| 모습을 떠올리며  | 후지산                  | 5. 경기병 서곡-장면   | 기악곡-말을 타고 |
| 봄을 노래하자   | ① 봄이 부르고 있어요<br>② 시내 | 6. 봄의 노래       | 강이 부른다    |

이에 비해 일본은 감상곡 전후에 가창곡이나 기악곡을 두어 리코더의 음색,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점음표 리듬, 장·단조의 가락의 느낌, 정경을 묘사한 음악, 봄에 대한 내용 등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형태는 가창곡이나 기악곡과 연계없이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보다 음악의 구성 원리를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생각된다.

< 표 30 > 감상하기 전과 후의 학습 관계-미국(8 단원 중 2, 3 단원의 예)

| 주 제             | 학습 요소       | 감상 전의 학습                               | 감 상 곡             | 감상 후의 학습                  |
|-----------------|-------------|----------------------------------------|-------------------|---------------------------|
| 2. 가을 속에서 즐겁게   | 빠르기         | 시 낭송(10월)                              | 1. 범선들            | 사진(낭떠러지)<br>교재곡(빠르기의 변화)  |
|                 | 높고 낮은 음높이   | 가창곡-가장 높은(낮은) 소리                       | 2. 마법사의 제자        |                           |
|                 | 신비한 음색      | 설명(음색)<br>납말 발음(음색 변화)                 | 3. 아일랜드 요정        | 교재곡(유령 음색)<br>시(詩, 악기 음색) |
| 3. 민속 음악에서의 현악기 | 민속음악에서의 현악기 | 설명(민속 현악기)<br>가창곡(반주악기)<br>설명(기타)      | 4. Dueling Banjos |                           |
|                 | 강박과 박자      | 설명(박, 박자)<br>교재곡(강박 찾기)<br>교재곡(박의 덩어리) | 5. 존 헨리           | 설명(민속 현악기)                |

미국의 경우에도 감상곡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재곡 사이에 놓여져 음악적 구성 원리를 이해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시(詩)와 사진이 감상 교재곡과 가창 교재곡의 연계를 더욱 튼튼히 해 주고

있고, 한 단원에 수록된 교재곡들은 2 단원의 '가을 속에서 즐겁게'와 3 단원의 '민속음악에서의 현악기'에 맞게 가을과 만성절 또는 민속 현악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의 교과서보다 감상곡의 지도 단계가 잘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현행 교과서 발행 제도와 음악과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교재의 선정과 조직 방법, 영역별 지도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나타난 우리 나라 음악 교과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과서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 '특수 편성'된 부분이 가창 및 기악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교과서 마지막 부분의 구성 또한 연주 사진으로만 되어 있어 단조롭다. 그리고 '일반 편성'에 있어서 교재곡들이 악곡에 의한 제재 구성 방법으로 구성되어, 제재간에 유기적인 관련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며, 따라서 내용 구성이 산만하다.

둘째, 가창 교재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부분 2부합창의 합창 부분이 학생의 발달 수준에 비해 어렵게 편곡되어 있으며, 가창 교재곡의 국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나라에 따른 음악의 고유성을 학습할 기회가 없다. 또한 조성(調性)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음계의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없으며, 독보력 신장을 위한 내용과 박 및 박자의 개념에 대하여 제시된 내용이 부족하다.

셋째, 기악 활동에 있어서 순수 기악곡의 형태가 적고, 교실에서 연주하는 리듬악기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으며, 가락악기의 활용이 가창 및 기악 영역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법이 어려운 가락악기를 연주하게 되어 있으며, 주법 지도에 있어서 체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연주곡에 있어서 연주해야 할 음의 수가 많고 주법이 설명되지 않은 음이 들어 있어 연주하기에 어렵다.

넷째, 창작 학습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부족하여 창작 활동이 단조롭고 막연하며, 음표와 쉼표 및 기호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보에 표기되어 학생들의 음악 학습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감상곡 지문에서 학생의 관심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오선악보로 악곡이 소개되어 학생들의 감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사실적인 정보 전달력이 부족하며, 감상 활동이 감상 전후의 학습과 연계되지 못하고 감상 행위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 학습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 2. 제언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국민학교 음악 교과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제재 구성 방법으로 되어야 하며, 교과서 마지막 부분이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가창 및 기악 영역 외에도 창작 및 감상 학습 내용이 특별히 편성되어야 하며, 음악극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가창 교재의 선정에 있어서 가창의 형태, 조성(調性), 지역 등이 다양해야 하며, 부분 2부합창의 합창 부분이 학생의 음악적 기능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편곡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보력 신장을 위한 내용과 박 및 박자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순수 기악곡을 수록하여야 하며, 연주하는 리듬악기의 종류를 늘려야 한다. 가락악기의 활용 영역을 창작과 감상 활동에까지 넓혀야 하고, 보다 연주하기 쉬운 가락악기를 선택하여 체계적인 주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주곡 자체도 악기의 주법을 학습한 범위 내에서 연주 가능하도록 선정하거나 편곡해야 한다.

넷째, 창작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음표와 쉼표 및 기호 등은 체계적으로 학습된 후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감상곡 지문에 있어서는 소수의 감상 관점이 분명히 제시되어 감상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감상곡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보다 쉽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감상곡을 통한 악기의 소개는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감상 활동이 감상 전후의 학습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곽병선, 「교육과정」, 교육연구총서 7권, 서울: 배영사, 1983.
- 곽병선 외 6명,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1.
- 곽병선 · 이해영,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1986.
- 교육부, 「국민학교 음악 3」,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3.
- \_\_\_\_\_,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 \_\_\_\_\_,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1988, (교육부 고시 제 87-9호)
- 김만익, “국민학교 음악 교과서 개편에 따른 분석과 전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보희, “음악교육에서의 교재의 역할과 문제점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익순, “중학교 가창교재에 대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정순, “국민학교 음악과 교과서의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태욱, “한국동요와 일본동요의 특징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혜숙, “신 · 구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희진, “미국 초 · 중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류덕희, 「음악교수법」, 서울: 정음사, 1985.
- 박시현, “한 · 일 국민학교 자연과 교과서 삽화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우양, “국민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와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실천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배재희, “한국의 교과서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성경희,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동향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7.
- 성경희 · 권동원,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연구 초 · 중 · 고등학교 음악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 심대용, “한국과 일본 국민학교의 음악교과서 내용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오종재, “국민학교 음악교재의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윤월수,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비교 분석”,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이미영, “한·일 국민학교 음악교과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영덕 외 7명,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 이영재, “한국 국민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와 미국 Holt 교과서의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용숙 외 2인,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 \_\_\_\_\_,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 장기원, “영국의 교육개혁”, 교육월보(1991년 11월호 통권 제119호), 서울: 교육부, 1991.
- 장호현, “교과서에 제시된 성악적 지시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창지사, 1986.
- 차은경, “국민학교 4, 5, 6학년의 음악과목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최부자, “한·중·일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국2중교과서협회, “2000년대 한국교과서의 미래상”, (교과서 개선연구 세미나 보고서), 서울: 교학사, 1986.
- 한종하 외 2인,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7.
- 三善 晃, 「음악 3」(문부성 검정제 교과서), 교육출판주식회사, 1991년.
- Staton, Barbara, Merrill Staton, Marilyn Copeland Davidson, and Phyllis Kaplan, 「Music and You」 3학년 Teacher's Ed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1.
- Staton, Barbara, Merrill Staton, Marilyn Davidson, Phyllis Kaplan, and Susan Snyder, 「Music and You」 4학년 교과서,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1.
-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Visual and Performing Arts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Sacramento, Cal., 1989.

## ABSTRACT

# An Analytical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Music Textbook for the Third Grade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un-Hi Lim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suggest the desirable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by finding out some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music textbook of the elementary school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contents of our textbook with tho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ording to the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earch were established as follows:

- ① What are each country's ways of writing, publishing and selecting the textbook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② What are their ways in which each of the three countries decides its curriculum, and what are the organizing style of the subjects, time allotments and music curriculums made up of?
- ③ How does each of the three countries select and construct the contents of the music textbook?

For the search above, the current music textbook for the elementary students, which is book of the fifth amendment in Korea, was used, and at the same time the elementary textbook published by Education Publishing Co. in Japan and a book-'Music and You(Teacher's Edit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were used to be compared ours with the others.

And so, some problems in our music textbook found through the 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the whole construction of the textbook, the parts which are

organized specially are limited to vocal activities and instrumental ones; while, the other parts, that is what are organized generally have lack of organic relations and systematization between materials.

Secondly, the forms and the tonalities for singing materials are not various, and the chorus parts are arranged with difficulties in comparison with students' developmental stages. In addition, the contents for the growth of the ability to read music and the contents about the concepts of beat and meter are not sufficient.

Thirdly, in the activities for play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guidance steps for students to play them are not systematic, and musical pieces as teaching materials demand a high level of playing skill.

In the fourth place, the activities for composing are dull and vague because the concrete directions about composition activities are insufficient in the contents for learning to compose. And the substances about musical scores, rests and notes are used without being presented.

Finally, students' learning to appreciate music is not effective. It is because not only their concerns are needed a lot for listening materials, but also appreciation activities are not closely connected with learning before-and-after the appreciation, and listening to music itself is apt to be an objec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earch above, some directions are suggested here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our elementary music textbook.

In the first place,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should be constructed diversely,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between substances after due consideration for students' interests and abilities, so that they may offer various kinds of musical experiences to students.

Secondly, teaching materials for singing must be selected variously in their forms, tonalities, regions, and etc.; the chorus parts must be arrang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students' developmental stages; the contents for the growth of music-reading abilities and the contents about the concepts of beat and meter must be suggested with various forms.

Thirdly, some musical instruments that students can play easily should be chosen and presented a systematic execution to them. Besides, teaching materials itself for performance should be selected and arranged within the range which students have learned how to play the instruments.

In the fourth place, the contents for learning composition must be presented both diversely and concretely under the consideration of students' abilities and interests. And musical scores, rests, and notes should be used after they are studied systematically by students.

Lastly, in teaching materials for appreciation, only a small number of selected viewpoints of appreciation should be clearly suggested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 and the concepts of music. And the materials must be set up systematically under the constitution in which appreciation activities have connections with learning before-and-after the activities.